기존 동판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복제건물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태형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4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김주희 법구

성내는 자에게
되받아 성내는 것은
옳지 않다 〈상응부경전〉

법회 안내

도안사 (02)936-593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신중기도 매월 3일(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어린이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 11시

강남 포교원 (02)539-2631
어린이법회 매주 수, 일 오후1시
학생부법회 매주 수,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수, 일 오전11시
교리강좌 월, 화 오전10시30분

선운사 (02)992-7064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선본사 (02)992-9973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대천포교원 (0584)654-678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생보현법회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초정법회 셋째 목 오후8시

일산 법등사 (0344)901-0877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인등기도 매월 15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교양대학 월, 화 오전10시30분
어린이한문교실 토 오후3시
초정법회 첫째, 셋째 일 오전10시

대구 관음사 (053)421-3700
가정기도 매월1~3일 오전10시
불일법회 매월 9일 오전10시
바른말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차별 심하다" 이구동성

조계종 중진 비구니스님 연수…기초선원·종무행정 참여 요구

조계종 종헌은 종단이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4부 대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와 비교해 보면 비구 · 비구니스님은 앞바퀴 둘, 우바새 우바이는 뒷바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바퀴가 튼튼하고 균형이 맞아야 자동차는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거대한 자동차의 앞바퀴 소입증 하나를 맡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이 의외로 깊은 소외감과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19일 청도 운문사에서의 2박3일간 연수를 끝내는 회향식에서 67명의 참가스님들은 연수의 소감과 종단에 바라는 점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냈다.

비구니스님들이 승려수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러 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지적돼 왔다.

그러나 교계 최초의 비구니스님들의 연수에서, 그것도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어 가는 중진 이상 스님들의 연수모임에서 이같은 사실이 스님들 자신이 직접 작성한 소감문에서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항상 다른 종단 또는 신도들 보다도 더 무시를 당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비구니스님도 있었다.

스님들은 총무원장이나 본사주지를 선출하는데 있어 비구니스님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과 종무행정직에도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종단행정에 건의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애로점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종단에서 비구니스님들을 배려, 女行者교육은 비구니스님들이 맡고,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기초선원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비구니스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노후대책. 이것은 첫날인 17일 총무원장 스님과의 간담회때도 제기되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증가차게 요구해 왔지만 번번히 뒤로 밀리고 있어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

이번 연수에도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불교의 대처방안'이란 주제로 한국사회의 정치 · 사회적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듣는 강의와 함께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불교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과 토의시간을 가져 스님들에게 유익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다.

연수의 필요성과 실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연수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전에 논의를 거쳐 좀더 비구니스님들의 희부에 와 닿고 현실 당면한 주제를 정했으면 모처럼 6박 연수가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참가 스님들의 소감이었다.

〈온문사=아경숙 기자〉



"학인시절로 돌아갔어요" 비구니스님들은 비구스님 위주로 된 종단의 여러 정책에서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연수회 참가스님들이 직접 작성한 소감문에서 드러났다. (사진=박재원 기자)

종단협 거듭나기 모색

정관개정…분과위 · 자문단 구성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거듭남을 모색하고 있다.

종단협은 지난 19일 제30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활동강화를 위한 정관개정 △분과위원회 · 자문단 활성화 △4 · 8여의도 봉학행사 건등을 논의 확정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등 22대 종단 대표자 및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기존의 3명이던 부회장을 7명 이사를 35인에서 40인으로, 감사를 2인에서 3인으로 늘이기도 했다.

종단협은 회원 종단의 특색을 살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새로 규정하고 사회 전문인사로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고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한국불교계의 대표 기구로서 봉일 · 환경 · 복지 인권등 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불교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승려 인권문제연 내달 발족

권익 · 복지대변…소장에 범산스님

승려들의 권익과 복지를 대변할 연구소가 발족된다.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산스님등 스님 10여명은 지난 18일 대각사 대중전에서 '승려인권문제 연구소' 창립 발기인대회를 갖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진관스님은 "비록 수행자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자비로 섭수해 부처님 법을 실천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본 연구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승려인권문제 연구소는 개혁중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승려들을 가운데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 호계원등을 통해 참회의 길을 열어 주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초 창립예정인 승려인권문제 연구소 소장에는 범산스님(밀어사 총무)이 부소장에는 지욱스님(대장경 서각연구실 대표)이 맡게 된다.

평불협 남북법회 대표 지난21일 평양에 파견

평불협 미주본부(회장 도안스님)는 지난 21일 제2차 남북해외불교지도자 대법회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대표를 북측에 파견했다.

이번 방북은 지난 8일 L.A 수도사에서 열린 미주본부 일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불협 미주본부 상임부회장 지현정사(진각종 L.A포교원장)와 상임고문 정산스님(수도사 주지)이 방북길에 올랐다.

실무대표단은 또 방북기간중에 '평불협 미주본부 북한 성지순례단'의 방북의사도 타진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4월 개최가 무산된 평불협은 오는 6월과 10월중 북측에 '남북해외 불교지도자 대법회' 개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황 · 발전계획 발표 중앙승가대 이전 설명회

중앙승가대 이전 설명회 및 '21세기 불교의 역할' 강연회가 지난 20일 중앙승가대 강당에서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인 사무처장 수완스님과 기획실장 금정스님이 중앙승가대 현황과 발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린 강연회에서 김진현씨(전 과학기술처 장관)는 "급변하는 시대를 불교가 이끌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 교육인 승가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사사령

박병근
명 부산주재 기자

이윤호
명 대구주재 수습기자
(4월17일부)

목어

원로스님들은 대중의 정신적 지주다.

지난 19일 〈고승열전〉 출판기념회가 열린 프레스센타 20층에는 청담 · 효봉 · 동산 · 용성등 근대 고승 열분의 사진이 모셔졌다. 그리고 그앞에 스님들의 생애와 가르침이 담긴 〈고승열전〉이 후학들에 의해 봉정됐다. 열분 큰스님의 법취가 식장에 감돌았다. 스님들은 가셨어도 그 법음은 큰 산처럼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때로는 법어와 화두로 때로는 주장자로 눈과 귀를 열어 준다.

같은 날 운현궁미술관에서는 석주스님의 선묵전이 개막됐다. 석주스님이 온양에 칠보복지원을 건립하기 위해 연 전시다. 스님은 경소에 "승려의 고향은 山"이라고 말씀하셨다. 젊은 시절 범어사에서 수행한 석주스님. 어린이를 좋아하고 한글을 사랑하신 스님은 경내가 옹색한 삼청동 칠보사에서 포교와 교육에 전력했다. 그러나 이제 90을 바라보는 스님은 산사를 그리워하나 마땅히 주석할 곳이 없었다. 한 재가자의 땅 시주로 복지원을 세우게 된 스님은 경생 잡아온 봇에 힘을 주었다.

승가대를 위해서 선북전을 열었던 스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스님 스스로 전시를 준비했음을 강조했다. 그 말씀속에는 우리가 감지해야 할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또 한분의 노스님이 요즘 화제에 오르고 있다. 청화스님이다. 대중은 청화스님 하면 태안사를 떠올린다. 그런데 스님이 권속들을 데리고 태안사에서 나왔다. 곧 미국 삼보사에 가서 3년 결사에 든다는 소식이다.

"수행인이 삼십을 오래 살면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화스님 문도들이 질을 나온 이유다.

"국비인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총무원 직원의 말이다. 왜 국비였을까.

노 스님들의 고향

팀냑한 · 고은씨 특별대담 3면
사찰 주말농장 늘고있다 15면


목련기념관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곡성 · 성륜사(聖輪寺) 서울 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부산 관가정호텔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金同기와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사공후 붉은 사건화에 표면에 치밀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이피한 기후 조건과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창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동판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에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판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용, 우리기와의 전통적 원형과 곡선미를 완벽하게 재현시킴으로써 고유의 멋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주요 기와부품을 기계 가공해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완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흙기와의 10분의 1정도로 기대위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식 한식동기와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會社 豐山
전화 : 273-3021/9 FAX : 273-3835

풍산 한식동기와로 시공한 대표적 건물 목련기념관, 오대산 월정사, 구례 화엄사 연기암, 하동 칠불사, 부산 관가정 호텔, 문경 김룡사, 문경 대승사, 부산 목전사, 상주 남장사, 상주 극락암사, 곡성 상룡사, 서울 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예천 감천사, 대구 은음사, 대전 현불사, 구미 해운사, 나주 홍복재기, 양남 한국도로공사, 이리 원일유업, 대구 다구예술, 서울 화계사

사 설

전통과 시대적 요청 조화를

교육은 국가의 百年之大計라 한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일한 형식논리로 승려교육은 불교의 장래를 결정하는 초석이다. 승려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이 21세기 한국불교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때마침 조계종의 승려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원은 전국 강원의 통·폐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 통·폐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 전국 강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강주들의 회합을 주선하여 통·폐합시 발생할 승려교육의 장단점을 검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의 실무자는 통·폐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두가지 측면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학년별 통·폐합이다. 각 학년마다 강사의 전공과 학생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시키는 방식이다. 이것은 강원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장점은 있으나 종합적인 승가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는 부진한 강원의 통·폐합이다. 학생 수의 과다와 교수진의 양적 질적 문제 그리고 지리적 환경적 요소를 감안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분산된 힘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교육에 투자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승가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백년 내지 수십년 간 계승되어 온 각 강원의 전통이 무너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시점에서 교육원이 강원의 통·폐합을 유도하려는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현대사회의 특성이 다양화·전문화에 있으며, 국내외의 간격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일반은 승가 구성원들이 현대사회에 알맞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를 정토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시대적 전통이나 교육방식에 연연하기 보다는 다양하고 집중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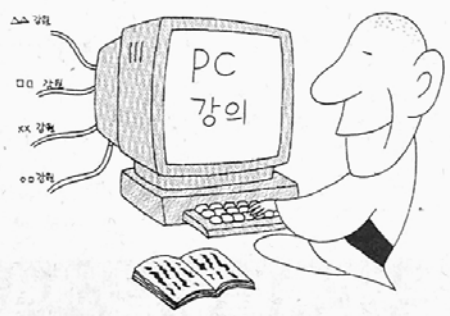
강원이 단순히 경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주는 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제반 교양도 이수케하므로써 출가 수행승들이 사회 일반의 정신적 사회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정·의를 한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나 교육제도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승가교육은 불교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잣대다. 불교의 이상이 개인의 해탈과 살기좋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있다면 강원의 내실이 탄탄해 질수록 보다 불교적 이상에 다가가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계종의 전통 강원이 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종단이나 전국 14곳 강원 당사자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촉구하고자 한다. 뿐만아니라 뜻있는 불자들은 이 보다 더 큰 불사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적극 후원하기를 발원하고자 한다.

사회의 청량제가 될 수 있는 승가가 있는 사회는 희망과 기쁨이 있는 사회가 분명할 것이다.

현 대 만 평 박구원



교육도 시대따라…

열린마당

조계종 강원 통·폐합

교육의 質개선·특수강원 폭넓게 검토



향적스님

조계종 교육법 제70조에 의하여 모든 승려는 중앙승가대학이나 지방승가대학을 기본 의무교육기관으로 이수하여야만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전국에는 14곳의 지방승가대학이 있다. 학인들이 많게는 2백여명에서 적게는 7명인 곳도 있다. 학인들이 20명 미만인 곳이 5곳이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는 예산 낭비일 뿐더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가 없으므로 지방승가대(강원)를 개편,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일부 지방승가대는 훈고학적이고 변화없는 강의가 계속될 뿐더러 강의도 강주 중심이다. 또한 각 강원마다 교재나 교과과정도 통일되어 있지 못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없다. 그러므로 승가대를 총림을 중심으로 3~4곳 정도로 통합하고 기존의 강원은 사찰 특성에 맞게 학림이나 특수 전문강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영어, 일어, 산스크리트어 등을 가르치는 어학 전문강원이나 어산 범패등 불교의식을 전수시키는 강원, 또는 체계적인 종무행정을 지도하는 곳 등 특수강원을 만들면 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의 정보사회와 보조를 맞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육원은 25일 「전국 강주 및 교육관계자 연석회의」부터 시작해 지방승가대(강원) 개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6월경 지방 승가대 개편에 관한 사상적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사찰 전통잇는 강원 필요성 인식하길



현강스님

강원은 대부분 전통적 기존 사찰에 개설되어 있다. 당해 사찰에 주지가 당연직 강원장이 되고 예산이 사찰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강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독자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여기에 몇몇 강원에서는 학인이 부족하여 강의가 폐강되는 등 유명무실하기조차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원에서 '강원 통·폐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강원은 종단의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승려전문교육기관일 뿐 아니라 대부분 초심자들이 입학하여 승려로서의 전문적 교리와 인격을 축적하고 연마하는 곳이다. 이러한 강원의 활성화를 위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강원들을 모으고 교육체계를 통일시킨다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원 통·폐합은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사찰의 전통을 잇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없는 강원도 만들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내실이 부족하다하여 강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전통강원은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오랜동안 쌓아놓은 고유의 개성이 통·폐합되기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반 세속의 학교식 통합은 반대한다. 이미 출가자의 연령이 평균 30세를 넘었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

옛스님들이 세워놓은 강원의 허물을 찾기보다는 전통강원의 체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선적으로 반성해 보아야 하겠다.

〈법주사 강주〉

승가대학·학림 교육체계 이원화 필요



금정스님

교육원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 통합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은 종단의 교육개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간 일부 강원들이 학인의 수적 감소와 교습체제의 미약등으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원의 복안이 '강원 통·폐합'과 '대형교육기관 형성'의 선이라면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승가대학과 학림의 뚜렷한 구분을 제시할 수 있다. 중앙승가대등 일부 승가대학은 승려교육의 기본 구조로 자리매김 되고 학림은 보다 깊이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승가대학의 역할과 경율론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학림이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에 맞는 승려교육기관의 이원화의 정착을 뜻한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교육기관과 전문적인 경학탐구의 기능처가 공존될 때 불교도 현대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시 론

'20대 신인간' 우려의 대상인가

오늘의 우리 사회를 도덕적 위기의 사회라고 한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점차로 악(탐·진·치)이 득세하고 선(계·정·혜)이 맥을 못추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로 청소년을 지목하는 견해가 팽배하고 있다.

오늘의 청소년은 과거의 청소년에 비해 가치관이 흔들리고 비행이 늘고 있으니 앞날의 사회가 염려된다고 성인들은 근심하며 한탄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도덕적 위기를 나타내는 여러 징후들이 있다. 4월 15일자 중앙일보에는 20대 여성들의 상당수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며 계약결혼, 독신, 동거를 선호하고, 또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도 생각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게재한 바 있다.

음주, 흡연이 늘고 환각제를 복용하는 청소년이 있으며, 절도, 강도, 성폭행자의 급증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위기 상태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김 종 서
〈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

이와같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변화 및 비행증가에 따라 청소년을 소극적·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을 적극적·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즉 청소년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들을 사회의 후보자나 종속적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이자 독립적 실체로 보고 이에 따른 이해, 기회의 제공, 대책을 마련하면 그들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구실을 다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시각의 타당성을 몇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전통가치 거부세대

한 나라와 사회의 존속·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 국방인데 이 국방의 임무를 청소년이 맡고 있다. 우리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청소년들은 나라를 위하여 많은 생명을 내던진 숭한 예를 역사를 통하여 역력히 보아왔다. 국립묘지에 묻힌 영령의 거의 전부가 청소년이다. 체육활동에 의한 국위선양도 청소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된 88 올림픽에서 세계 4위를 달성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세계 7위의 명성을 떨친 것도 청소년의 힘이다.

과학에 있어서도 청소년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것도 젊은 과학도들이다. 그들이 연구에 종사한 나이는 20세 1명, 22세 1명, 23세 6명, 24세 1명이다.

청소년 시절에 벌써 큰 명성을 떨친 문인도 무수히 많다. 최남선은 18세 때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인 「소년」을 창간하였으며, 김소월은 아직도 어린 나이라 할 수 있는 16세, 17세 때 수 많은 시를 썼으며, 유명한 '진달래꽃' 역시 21세 때의 작품이다.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도 가장 예민한 것이 청소년기이다. 유명한 일본의 명치유신도 젊은이가 중심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4·19혁명 또한 청소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유관순은 16세에 '아우내 만세사건'의 주역이 되었다.

음악에 있어서는 홍난파가 22세때 '봉선화'를 작곡하였음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오늘날 정보사회를 이끄는 컴퓨터의 조작기능을 어른들이 과연 청소년을 따라갈 수 있을지?

창의적 잠재력 육성

이와같이 청소년들은 예리한 지력, 반짝이는 직관력, 강인한 체력, 순수한 열정으로 나라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기수가 되어 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을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로 보기보다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청소년 대책이 시급하다고 부르짖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청소년을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라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물론 청소년 비행, 극단적으로는 청소년 범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청소년 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정립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대책수립의 핵심적 과제이다. 왜냐하면 정립된 시각이 '자기충족예언(自己充足豫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자기충족예언이란 인간이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말한다. 청소년을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로 보는 시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청소년은 그러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질지 모른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성인들이 기대하고 청소년들이 이를 확신하면 유망한 청소년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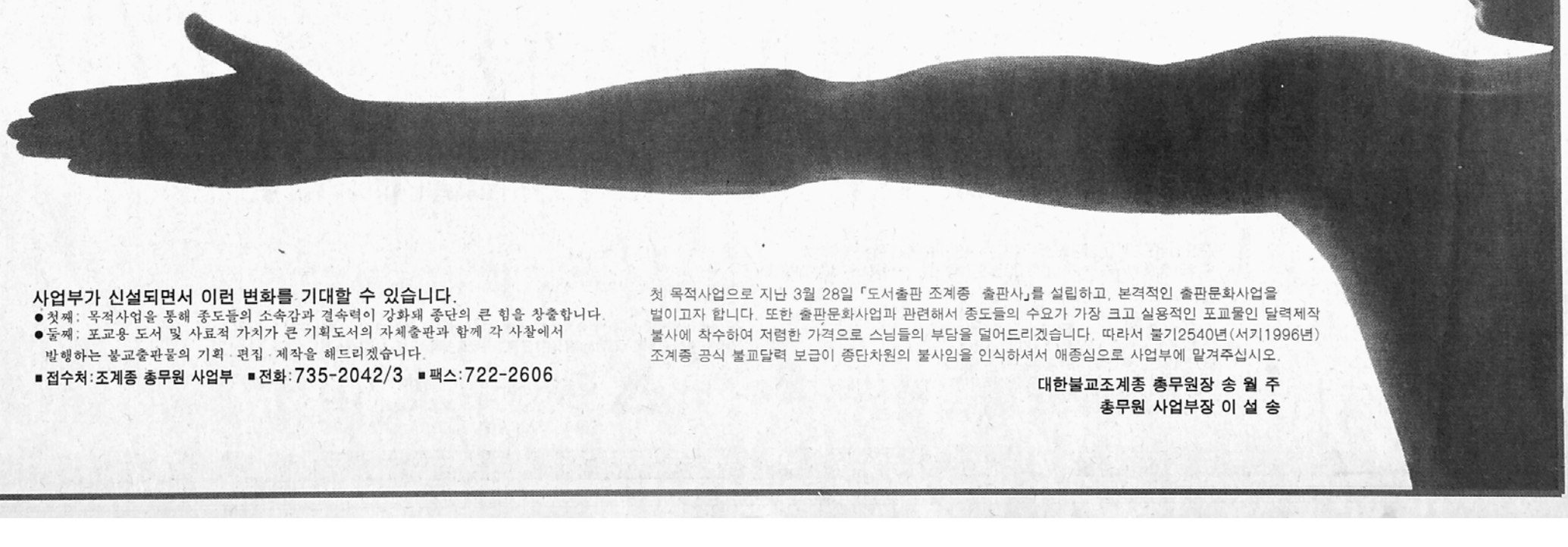
사회는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의 성인들도 청소년 때 당시의 성인들로부터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라고 문제시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제시되었던 과거의 청소년이 성인이 된 오늘은 과거의 성인보다 사회를 더 발전시켰다.

마찬가지 논리로 현재의 청소년이 성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현재보다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예술적 정서에 젖을 수 있는 기회, 봉사심을 자극하고 이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의 성인이 얼마나 제공하였는지에 있다. 아니 기회의 제공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봉쇄하고 좌절시키는 잘못을 성인들이 저지르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반성치 않을 수 없다.

조계종 총무원 출판사업 개시!

1996년 조계종 공식「불교달력」을 제작 보급합니다.

조계종 개혁 종헌은 종단의 3대 사업인 포교·역경·도제양성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단체제 및 기구를 혁신하였습니다. 이에 총무원은 종도들의 신뢰와 여망을 토대로 사업부를 통해,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목적사업을 벌여 종단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부가 신설되면서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목적사업을 통해 종도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이 강화돼 종단의 큰 힘을 창출합니다.
● 둘째; 포교용 도서 및 사료적 가치가 큰 기획도서의 자체출판과 함께 각 사찰에서 발행하는 불교출판물의 기획·편집·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 접수처:조계종 총무원 사업부 ■ 전화:735-2042/3 ■ 팩스:722-2606

첫 목적사업으로 지난 3월 28일「도서출판 조계종 출판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출판문화사업을 벌이고자 합니다. 또한 출판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종도들의 수요가 가장 크고 실용적인 포교물인 달력제작 불사에 착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불기2540년(서기1996년) 조계종 공식 불교달력 보급이 종단차원의 불사임을 인식하셔서 애종심으로 사업부에 맡겨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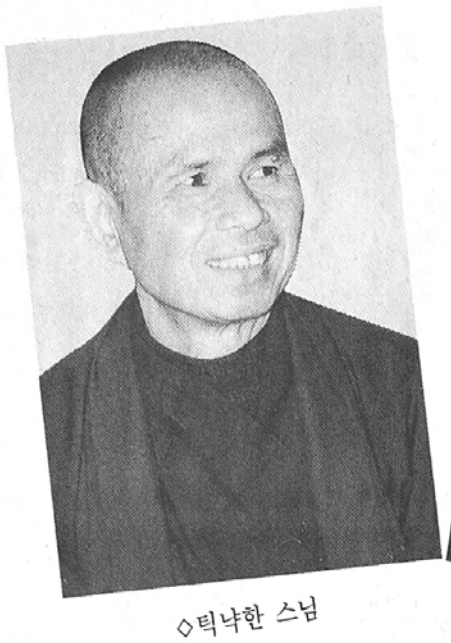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총무원 사업부장 이 설 송

"자신을 바꿀때 남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베트남 고승 틱낙한·본사 고은 논설고문 특별대담

장소: 구룡사 회관
일시: 95. 4. 20. 오후3시
정리: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베트남의 불교지도자이자 세계의 정신적 지주인 틱낙한 스님이 지난 17일 한국에 왔다. 스님은 현재 70세의 노구에도 불구, 베트남의 보르도우 근교에서 수행센터 매화마을을 이끌며 난민구호운동, 강연, 집필 등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28일까지 국내에서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틱낙한 스님과 본지 논설고문 고은 선생은 지난 20일 구룡사에서 만나 법담을 나눴다.
〈편집자 주〉


◇틱낙한 스님


◇고은 선생

고은=스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술중에 이미 번역되어 있는 〈평화로움〉을 읽었는데 막상 만나 뵈니까 스님의 자비스런 얼굴이 평화로움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에 온 기분

저는 여행이 승려의 생활이라 생각합니다만 스님께서도 행선(行禪:Working meditation)을 강조하시는 만큼 여행을 중시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사찰에선 손님을 흰구름이라 부릅니다. 모쪼록 흰구름으로 오셨으니 많은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님=하얀 구름이라 하지만 바람일 수도 비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기 전에도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한국식사를 했는데 몇백년전에 먹어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생에 구름이나 바람이 되어 이곳에 있었으니 고향에 온 기분이지요.

고은=70년대에 베트남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곳을 여행하는 가운데 어느 시골마을이 저의 고향과 같다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떨기 꽃이거나 이름없는 새가 되어 그곳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고향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스님께서 벌여온 평화운동은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평화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화합하는 길이라 봅니다. 결국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나누어 갖는 것이 평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스님의 고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평화운동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내적 화해에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적 화해가 외부의 모든 것과 화해할 수 있게 합니다.

고은=현대사회의 평화는 개념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룩해야 하는 것이 평화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내적 평화를 황홀하게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관계의 확대를 중시합니다. 일체의 생물·무생물체까지 상호갈등을 방지하고 소중한 관계를 확인할 때 불교적 평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의 세계적 확대를 중시합니다만….

> 평화운동은
>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 있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 내적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 자신의 내적 화해가
> 외부의 모든 것과
> 화해할 수 있게 합니다.

평화운동은 보다 높은 삶 나눠 갖자는 것
혼자일 수 없는 세상…모든 것과 화해 중요

무한 발견하는 예지

고은=스님께선 임제종에서 발전한 접현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매우 새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스님=접현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비롯하여 불교에 생소한 사람 즉 서구인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능한한 쉽게 전달하려 노력하지요. 이 세상은 혼자일 수 없으며 사람과 태양 꽃 바람 등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합니다.

고은=꽃을 예로 들었는데 저만해도 당장 혼자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저의 안경 구두 양복 등이 많은 관계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부처님께 내가 귀의하면 부처가 나에게 귀의한다'는 스님의 말씀은 화엄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유한한 질서 속에서 무한을 발견하는 예지가 있습니다.

스님=부자·부부관계처럼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픕니다. 그래서 상호관계 속에서 평화만들기가 중요합니다. 채식도 평화만들기가 중요하며, 기독교와 가톨릭, 경제의 남과 북이 연결되어 화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비심에 입각하여 도와주고 이해하며, 함께 협력할 때 평화가 이룩됩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에는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만들기의 형제입니다.

고은=저는 미국에서 크지 않은 신앙공동체가 평화만들기에 헌신하는 것을 보았고, 프랑스에서도 신교와 구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떼제란 신앙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어느 목사가 거리에 천막을 치고 평화만들기에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신주의에 물들어 가는 종교에 신선한 충격이며, 이런 작은 신앙공동체가 기성의 종단이나 교파보다 평화만들기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定念에 잠기는 행선

스님=세계에는 신앙공동체가 많이 있고 생기지만 서로 화합하지 않고 목적이 다르므로 오래가지 않으리라 봅니다. 효과적인 것은 자신과 화해하고, 이것을 단체생활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운동이 힘에 대한 저항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항은 있으되 국민을 전환시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자신을 바꿀 때 남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은 반항적인 편지는 잘 쓰지만 자비가 넘치는 편지는 잘 쓰지 못합니다.

고은=중국과 한국은 좌선을 중시하는데 스님은 행선(working meditation)을 강조합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스님=행선은 우선 무엇을 하면서도 定念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천천히 걷는데 자신이 늘 깨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음을 즐기며 걷는 중에도 정념에 잠기지요. 천천히 걷는 것은 도착할 곳이 없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자신과 화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은=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스님의 하시는 일이 아름답게 꽃피길 기원합니다. 긴 여행에 건강하십시요.

틱낙한스님 공개강연 요지

18일 기자회견

○… 스님은 지난 18일 낮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오염 인간성파괴 등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불자들이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우리나라의 선종과 자신이 창시한 접현종(接現宗)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선종이나 접현종은 불교라는 공통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접현종은 현대적 의미를 가미한 새로운 불교 수행법"이라고 소개했다.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실천을

스님은 현대문명이 야기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개개인이 모두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직접 몸소 실천해 주위의 모범이 될 때 우리사회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동국대 정각원

○…19일 오후 2시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이 주최한 고승초청 법회에 참석한 스님은 불교대학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설법했다.

사이공의 완한(Uan Hanh)불교대학교를 설립했던 스님은 "장차 오실 부처님은 남성 또는 여성의 모습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며 "불교대학을

천수천안 되어 이웃을 도와야

졸업하는 학생들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千手千眼)이 되어 고통받는 중생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불교대학을 부처님의 법신(法身)으로 생각할 때, 그 졸업생과 교수들은 부처님의 수 많은 눈과 팔이 돼야 한다는 것.

'부처됨'의 핵심은 사랑과 수행이므로 부처님이 불교대학으로 화현(化現)했을 때는 교수와 학생들이 수행과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스님은 또 "학교 교과목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연등국제 불교회관

○…같은 날 오후 5시, 스님은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재한 외국인을 위해 행선 수행법을 지도했다.

자각과 의식적인 호흡이 하나가 되는 '행선'은 틱낙한 스님의 가장 중요한 수행방법 주의 하나이다. 스님은 이 수행법을 정신집중(mindfulness)이라고 부른다. 스님

명상은 이 순간의 평온찾기 위한 것

은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깨어있는 성실한 걸음을 걷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명상의 목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평온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일 녹수청산에서 열렸던 틱낙한스님과 강옥구씨의 출판기념회.

20일 조계사 대웅전

○…20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조계사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가 공동주관한 틱낙한 스님 초청 법회가 열려 성황을 이뤘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부처님 눈으로 사물의 근원 보자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과 행선 수행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인간이 부처님의 눈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눈으로 사물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부처님의 수행을 본받아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생활 속의 불교 ㉔

"남의 아비 찾으니 사랑을 알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법등명(法燈明) 자등명(自燈明)을 말씀하셨다. '나를 섬기지 말고 법을 보고 자성불에 귀의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겨서 '신묘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자면 억겁을 수행해도 될 듯 말 듯 하다'는 생각을 하기 일쑤이다.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복이나 듬뿍 주십시오.' 하기도 한다. 불도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왜 '법등명 자등명'의 가르침을 남기셨을까?

인간의 힘으로 좀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면 차라리 '나를 열심히 믿고 내게 구원을 청하라.'고 하시지 왜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 보아도 그것은 메아리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앉아서 가로등을 쳐다 보며 내 방이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안에다 불을 켜야지 밖에다 불 밝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밖으로 찾으려니까 좋은 이름 찾아야지, 높다는 사람 찾아야지, 번듯한 건물 찾아야지…. 도무지 몸과 마음만 바쁠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 앞을 다퉈 가며 향촉 밝히고 공양 올리는 일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일인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당신의 노예로 삼자고 가르치신 게 아니다. 오관을 출중하게 갖추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노예처럼 살아 가는 중생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대 자유인으로 만들고자 법을 설하신 것이다.

법등명 자등명. 바깥 형상에다 빌고 절하지 말고 마음으로 불을 밝혀 자성불에 귀의하라는 말씀이다.

자성불 외면하고 타력에 기대면 평생을 가도 물맛을 모른다.

내 아비 제껴두고 남의 아비 찾으면 평생을 가도 사랑을 맛볼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유를 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협찬 : (주)삼주기계 – 대표이사 秋收旭
자동차 엔진 멋손 부품 ·
자동화 기기 설계 제작 · 가공 전용기 설계 제작
본사 울산시 중구 효문동 750-1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교차로

수국사 봉불식 법회 축사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은 지난 19일 서울 수국사 큰법당 부처님 봉불식 법회에서 축사를 했다.

원주성불회서 법문



월탄스님(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17일 KBS원주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린 원주 성불회 창립 13주년기념 대법회에서 '21세기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법문했다.

BBS교통통신원에 수계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지난 19일 오후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1백10여명에 대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영산대법전 상량식



현호스님(법련사 주지)은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30분 연건평 1천2백5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규모의 법련사 영산대법전의 상량식을 갖는다.

'위령 1백재' 위해 도일



삼중스님(자비사 주지)은 일본 고베 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1백재'을 위해 지난 19일 출국했다.

정광학원 이사장 취임

천온스님(대흥사 주지)은 지난 21일 학교법인 정광학원 제9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25일에는 서산대사 탄신 475주년 기념 제1회 나라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사상 강연회 개최



혜창스님(조계종 호법부장)이 오는 28일 오후7시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2층 대연회실에서 사상 대강연회를 갖는다. 직지사 대구포교원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서 미화원들에 대한 성금 전달식도 마련된다.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법경스님(능인정사 주지)은 오는 2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광진구 노유2동 보리수다방에서 갖는다.

장학금 5천만원 전달



정희수이사장(화엄승가장학재단)은 지난 16일 화엄종 총본산 약사사에서 장학증서 수여법회를 봉행하고 대학생 8명, 고등학생 60명에게 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건강주제로 강연



홍문화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26일 오후3시 녹수청산에서 본사와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공동주최하는 '저자와의 만남'에서 건강을 주제로 강연한다.

국회내 '정각선원' 개원



권익현의원(국회 정각회 회장·민자당)은 27일 오전10시 국회의사당내에 법당 '정각선원'의 개원식을 갖는다. 정각선원은 불자 국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수행도량으로 활용된다.

송광사서 헌공다례식



감승희원장(한국차생활 문화원)은 26일 보조국사 탄신일을 맞아 송광사에서 회원 30명과 함께 헌공다례의식을 펼친다.

게시판

▲사경공덕원 개원=사경전문 수행도량인 사경공덕원(원장 한불은)이 30일 개원된다.

사경공덕원은 사경본〈관음경〉〈관음예문〉〈반야심경〉등을 출간하며 이날 오후 3시 출판기념법회도 갖는다.(02)739-3881, (0338)73-8556

▲고대사 강좌=한국우리민족사연구회가 26일 정오 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반도 유적으로 본 삼국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강좌를 개최한다.

화혼 본사 관리국 이정호 과장이 박은영양을 신부로 맞아 23일 정오 속초시 이화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



용성문도 문장 혜암스님 추대식

용성문도 문장 추대식이 지난 14일 오전11시 범어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3대 문장으로 혜암스님(해인사 방장)이 추대됐다. 추대식에는 정관, 지관, 근일, 벽파스님 등 1백여 용성문도들이 동참했다.



월주스님등 국립재활원 위문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 불교간병인 협회장 정진스님 주양자의원(민자당, 보사위원)등 20여스님과 불자들은 국립재활원(원장 송항섭)을 방문 환자, 재활훈련생, 놀이치료생 등 2백여명을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고승열전' 10권 출판 기념회

'고승열전' 시리즈 1차분 10권 완간 출판기념회가 지난 19일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도문 현호 설정 보각 명정 동광스님 등 문도들을 비롯해 송석구 동국대총장, 김태호 불교방송사장,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복지관 기금조성 석주스님 서예전

불교복지회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석주스님 서예전이 지난 19일 운현궁 미술관에서 문을 열었다. 석주스님의 서예작품과 도예 및 원로중진 서화가 32명의 작품이 전시된 개막식에는 태고종 전 종정 덕암스님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인권위 법당 기금 마련전

불교인권위원회가 법당 건립을 위해 개최한 기금 마련전이 지난 19일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날 전시회에는 설정, 종하, 시현, 도성, 정대, 현진, 영배, 지원, 범산, 스님과 박정기씨(고 박종철군 아버지) 김중배씨(한겨레신문 전 사장)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대불' 창립

사단법인 한국불교 대불(大佛)창립총회가 지난 16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대불련 동문 2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불교 대불 이사장에 명호근씨(인터뷰 7면),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에 임동주씨(10기, 정신문화연구원)가 선출됐다.

문화재 공해훼손 막는데 주력

창립 20돌맞은 문화재연구소
장경호 소장



"그동안 고려벽화묘등 53건의 발굴조사와 1만2천여건의 지표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석사 무량수전 등 중요문화재 1백 60여건의 정기 안전진단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해로 인한 문화재 훼손 문제를 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장경호소장의 소감이다.

장소장은 그간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들이 전통문화를 소홀히 대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전통의식과 전통문화를 지켜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장소장은 "오래된 절집을 헐고 새로 지을 때에는 주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측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를 담은 〈문화재연구소 20년사〉를 펴냈다. 〈재〉

일간지 최초 불자회…직원융화 도모

경향신문 불자회 회장
김병락 씨



"불교의 생활화를 통해 즐겁고 명랑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싶습니다"

일간지 최초의 불자 모임이라는 점에서 창립전부터 관심을 모은 '경향신문 불자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김병락씨(비상계획부장).

김회장은 우선 불자회를 통해 부처님 정법을 배우며 직원들간의 융화에 진력할 것임을 밝혔다.

"날로 기능화돼가는 직장생활속에서 상호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 세상이 아닐까요"

부처님 법아래 모인만큼 철저한 생활불교를 통해 이웃을 돕고 나아가 사회정화에도 한몫을 하고 싶다는 김회장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법회를 활성화하고 회지를 발간해 대내외적인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서울신탁은행 불교행우회는 매년 2~3회씩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군부대 위문장면.

탐 방
신탁은 불교행우회

서울 10개팀 나눠 관리 단합 과시
보육원·부대위문등 자비행 앞장

매월 둘째주 토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50여명의 불자들이 북한산을 오른다.

원통사에 도착한 불자들은 관음기도정진을 회향하는 이들은 신심과 신행으로 똘똘뭉친 서울신탁은행 불교행우회(회장 김영태 이사) 회원들이다.

서울신탁은행 불교행우회는 금새 금강경을 거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108독에 빠져든다.

새벽녘, 아침예불을 올리고 산사를 내려오는 것으로 철야 안동진 법사를 상임법사로 매월 둘째주 목요일은 정기법회, 토요일에는 철야정진관음기도를 하는 신심으로 뭉친 알짜배기 불자들의 모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

87년에 7명의 회원들로 시작한 불교행우회는 현재 회원이 전국적으로 3백여명에 이르고 포교지로 등불(88호 발행)지 까지 발행하고 있다.

아난,사리자법등 등 서울지역을 10개 법등으로 나눠 팀장제로 조직을 결성, 탄탄한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신탁은행 행우회는 14개 은행 불교신행단체의 연합체인 '금융단 불심회'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행우회는 또 회비를 절약하여 보육원과 군부대, 지체부자유자시설을 1년에 2~3회씩 방문하는 등 보시생활과, 회원의 애경사에도 빠짐없이 찾아가 염불을 해주는 자비행에도 열심이다.

언젠가 지체부자유시설을 방문했을 때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하면 내몸을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니 불이문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스님의 법어를 행우회가 펼치는 사회복지의 원칙으로 하고있다고 한다.

불교행우회는 지방조직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에 법회공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직 창립안된 타 은행포교에도 조직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태 회장(서울신탁은행 이사)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게 올해의 서원"이라며 "은행 안의 회원 확충뿐 아니라 대외적인 포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김원우 기자〉

봉 축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부산시민 대축제

장 소 :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일 시 : 5월 3일(수요일)

▮ 오후 2시 —봉축전야 연합대법회

▮ 오후 3시 30분 —**시민대축제** ● 출 연 : 현철, 설운도, 김흥국, 태진아, 김국환, 방실이, 임주리, 정수라, 강산에, 신효범, 룰라, 한서경, 김정민, 김혜연
● 사 회 : 최용준 ● 특별출연 : 덕륜스님, 혜초스님

※ 본 행사는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의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며, 입장하시는 분들께 태국성지순례 등 130명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 오후 5시 30분 —시가제등행진(사직실내체육관—교육대—연산 R—양정 R 송상현공 동상)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입장됩니다. 오후 2시까지 입장을 완료하여 주십시오.

● 주 최 : 부산 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불교 신도회
● 주 관 : 부산 광역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 867-0501~3)
● 특별후원 : 불교부산방송·불교TV 32

'실체를 찾아서' 내춤의 화두죠



컴컴한 무대위를 밝히는 조그만 조명아래 한 여인이 온 우주를 감싸 앉을 듯 곱게 벌은 손가락으로 둥근 원을 그려 놓는다. 그 원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실체를 찾아서' '나는 없어지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고' '나와 너에서 벗어나다' ….

10여년 전부터 불교의 연기법과 기(氣)를 몸짓언어로 구사하고 있는 무용가 이영희교수(부산 경성대).

봄날을 더욱 화사하게하는 흰 목련같은 자태의 하얀 목련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교수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내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나로인해 결정되고, 나로인해 새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절 의욕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춤과 함께하는 내 생활이 더욱 여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터득한 삶의 맛을 털어 놓는다.

산문밖의 禪

무용가 **이영희** 교수

인연법 알면서 삶 이해…몸짓으로 일체무상 그려

"무대·아내·엄마·스승자리 모두가 수행처입니다"

이교수는 올 여름 부산 해변축제에 선보일 「만선이 사라지다」와 겨울쯤 무대에 올릴 「상이 없음을 보다」라는 작품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좌선에 든다. 그리고는 광안리 바닷가를 거닐며 행선(行禪)을 한다. 아침바다의 싱그러운 정취에서 이교수는 새로운 작품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신만의 몸짓으로 형상화되어 타인에게 보여진다.

고요속 마음 다스리기

고요속의 마음 다스리기를 즐기는 이교수는 시간이 날때면 이곳저곳 선방을 찾기도 한다.

"여느 때처럼 무상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육신이 외형적으로 모든 모습을 갖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정육점에 걸린 소 뼈다귀로 걸쳐져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또 한번의 '무상'을 인식하게 됐죠."

이교수는 지난 겨울 계룡산 대자암에서 동안거를 보내던 중에 경험한 내용을 「상이 없음을 보다」라는 작품으로 구상하고 있다.

올 겨울쯤 선보이게 될 이 작품은 그야말로 춤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한 작품으로 연출할 계획.

53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대개의 사람들은 '춤은 아름답고 미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교수는 '무용은 아름답고 이쁜 동작만으로 꾸민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데서 벗어나 인간의 가치, 사회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춤이 될때 예술로서 승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교수의 춤은 의례적이고 통상적이며 획일적인 것에서 탈피해 집착과 애착에서 해방되어 육망 앞에서마저 삶의 궁극적 자유를 찾으려는 선지(禪旨)를 지니고 있다.

이교수는 어릴적 학교 학예회에 자주 발탁된 것이 인연이 돼 50평생 춤을 췄다. 그가 무용인의 길에 들어 섰을 때, 그는 불교와 직접적 인연은 없었다. 단지 불교문화안의 가족이었을뿐.

그렇게 신앙, 즉 불교에 대해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그가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오면서 외로움이라는 커다란 고뇌의 덩어리를 떠맡게 되면서 부터는 달랐다. 그래서 스스로 초발심이 일어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불교에 귀의하기 전까지는 '예술의 궁극점이 무엇이고, 그에게 있어 무용이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라는 방향조차 쉽게 설정하지 못 했었다. 그러나 불교의 인연법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실체를 가지지 않는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올바른 삶의 가치, 자연관,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할줄 알게 됐을 때 그는 무용가로서 새로운 자리에 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춤은 아무런 고통이 와 닿지 않는 삶, 완전한 자유의 삶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몸짓이다. 그 몸짓에서 표출되는 힘은 우리들 폐부 깊숙히 억누르고 잠재우고 있는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도전적 심리를 들춰내고도 남는다.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완전한 자유의 삶 추구

무용실에서의 그의 시간은 선방에서 참선에 몰두한 선승이 '마음 비우기'의 처절한 싸움을 하는 시간과도 같다.

"참선수행에 말이 필요치 않듯, 일체무상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저의 무용에서도 그다지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지 않지요."

춤동작의 축소와 단순화는 바로 집착을 끊으려는 마음의 표현이다. 바로 그 집착 끊기의 용맹정진이 이교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 몸짓언어를 외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미얀마에서 수행중인 동생 혜성스님은 이교수에게 있어 정신적 의지처인 동시에 무대에서 무한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부산 서울을 오가며 아내로, 엄마로, 스승으로 1인 다역을 해내야 하는 이교수는 "무용이 곧 내 삶에 수행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곧 수행인 것이죠. 이 어디 한곳이 수행처 아닌 곳이 없고, 매 순간 수행정진 중이 아닌 때가 없기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힘겹다거나 숨가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는 수행자로서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생활에 대한 만족은 곧 그의 예술세계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작품에 임하는 그가 춤사위 하나하나에 빠져 들어 그와 춤이 혼연일체가 된 모습에서 그 힘은 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교수는 "춤을 추되 몸짓을 잊어 버리고, 몸을 움직이되 춤을 잊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무대위의 자신과 객석의 관중이 따로 있지 않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원력을 갖고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약한자, 강한자, 고통에 허덕이는 자, 행복을 즐기는 자 모두 내 마음 스스로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던지는 이교수에게서는 신라 범종에 그려진 비천상 속 천녀들의 부드러운 율동이 느껴졌다.

〈도필선 기자〉



삽화·이기선

아집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㉔

應無所住

어린이는 잡으면 놓지 않으려 한다. 제것을 놓치면 그만큼 먹을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엇이던 잡기만 잡으면 그것을 갖고 놀려하고 먹으려 한다. 사실 잡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잡고 아장아장 뒷따라 가는 것은 보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준다.

그러나 그 잡는 것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시도때도 없이 잡돌이를 당한다면 성가시고 귀찮을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만큼 내 앉거라, 저만치 떨어져서 놀아라고 타일러보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칭얼거리면서 매달리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뚝 떼어 놓고 일을 하여야 한다. 일을 할 때는 조용히 한자지게 외곬으로 들어 앉아서 하여야 하는데 주위에서 불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사람은 어떤 때는 고요하고 조용히 있고 싶다. 왜냐하면 일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잡음보다 놓음에서 일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놓음은 해방이다. 매이지 않는 것이다. 자유로운 시간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 말도 터놓고, 마음놓고 하여야만이 제 뜻을 놓치지 않고 다 전할 수 있다. 어디에 억눌려 말하거나 불잡혀서 말하면 참뜻을 전할 수 없다.

항상 열려있는 마음

제일 좋은 것이 방하착(放下着)이다. 방하착보다 넓은 공간이 없다. 우리들은 협소한 마음공간에 온갖 근심, 걱정, 번민을 싸잡아 물으려고 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숨통 막히는 일인가. 그러므로 선사들은 방하착하라고 할을 하고 방을 친다. 그런데 중생들은 할할 때 놀라고, 방을 칠 때 겁을 먹는다. 엉킨 마음이 있기에 그만한 소리에 간이 떨리고 기가 질려서 말문이 막히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공부되고 마음이 트인 사람은 그러한 할이나 방에도 텅 비어버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 자리가 무엇인가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의 자리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주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열려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대천 한 바다에 나온 사람이다. 골목길에서 광활한 신작로 길을 나선 사람이다. 번뇌의 짐을 벗어 버리고 해탈의 자리에 드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 무명속에서 안주

일찌기 독일 철학자 니이체는 식은 재를 짊어지고 산에 들어 갔다가 활활타는 불덩이를 짊어지고 내려 왔다고 갈파한 구절이 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런 해방의 목소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다 타버린 식은 잿더미 위에 살고 있지 않는가. 차거운 잿더미,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무기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잿더미 위에서 춤을 추면 온갖 먼지 바람만 휘날린다. 코도 막히고 눈도 시리고 입도 씁스레하다. 우리는 잿더미 위에 살고 있는 목각인형이다. 이것을 생명으로 불러 일으켜야 한다. 불덩이를 가슴에, 숨결에, 피빛에 옮겨 와야 한다. 니이체는 불덩이를 안고 내려 왔다고 외쳤다. 짜라투스트라의 노래이다.

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의 생명을 갈구한 것이 역역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여래장의 소식도 전해줄 것이다. 무명으로 있으면 잿더미이고 불덩어리로 살면 여래장이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체의 속박이나 결박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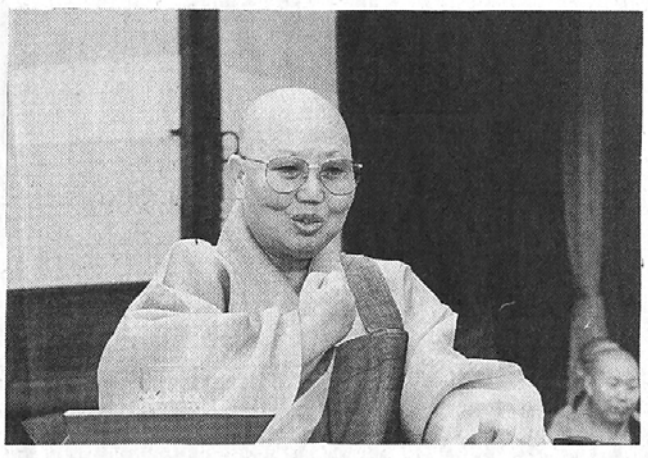
우리는 본래 자유인

응무소주, 이것은 잿더미를 박차고 나온 사람이 안주 할 자리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명의 잿더미가 귀중한 재산인줄 알고 움짝달싹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해방과 자유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래의 씨앗을 성장시켜라 일러주시고 있다. 먹은 마음없이 마음을 내어라. 그냥 자유를 성숙시켜라. 억지를 쓰지 말라. 자신에게 굴레를 씌워 결박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본래부터 해방자 자유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하고 이끄는 자가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아집의 쇠고랑을 만들고 삼독의 창고로 만들어 그 속에서 소일하고 있는 잿더미의 중생이 아닌가.

이제 인간은 불덩어리, 부처덩어리인 불성(佛性)을 자재롭게 하여야 한다. 그 길이 여래를 여는 길이고 불덩어리를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치마자락을 놓아야 아이도 어미도 자유롭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일체 아집의 알갱이를 비워버려야만이 집착없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인격체가 될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의 바라밀이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준공법회



일시 : 불기 2539년 4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법당

마음의 등불을 밝힐
도량이 신축되어
대행스님을 모시고
준공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뜻깊은 법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 원 장 혜 월
신도회장 김희남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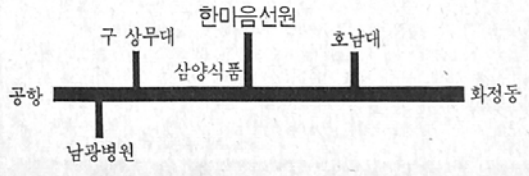


준공 ◀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법당

준공 ▶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요사채)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전화 : (062) 373-8801~3, FAX (062) 373-0174



예불 법회 교육 봉사 문화

도시사찰, 다목적 공간 갖춰야

김봉렬교수 '도시사찰건축…' 서 주장



◇김봉렬 교수

국내 도시지역에 건설된 현대 사찰건축의 현황을 조사 정리하고, 건축계획의 내용과 구성요소들을 도시적 입지성·기능성·종교적 상징성의 세측면에서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대 건축학과 교수이자 문화재전문위원인 김봉렬교수(공학박사)가 최근 학술진흥재단 공모과제 연구논문으로 제출한 '현대 도시사찰의 건축계획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란 이 논문은 신흥사찰과 포교당들이 점차 도시지역에 진출하면서 봉착하고 있는 건축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어, 향후 도시사찰 건축의 적절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교수는 "불교 현대화의 지향점은 현실화 대중화 생활화로 요약된다"며, 이들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사찰이 증가됨과 동시에 그 건축양식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전통적인 건축구조는 예불위주의 수행공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예불과 법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구조가 요구된다는 것. 이와 함께 기존사찰에는 없었던 대중의 교화와 교육의 장소,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시설의 제공,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교수는 현대사찰을 필요 기능별로, 예불과 법회의 공간, 수도생활을 위한 승방(僧房)부분, 신도의 교육 홍보 봉사를 위한 공공부분, 운영유지의 관리부분, 기타 부속부분으로 분류한다.

김교수는 현재 건설되는 도시사찰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도시적인 맥락에 어울리지 못하는 복고적 형태와 인습적인 대지 이용, 모호한 기능의 설정과 획일적이고도 진부한 프로그램, 절충적이고 비교리적인 상징과 표현 등을 지적했다.

또한 도시사찰의 대지는 대부분 외곽지의 주거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좁은 대지와 높은 건폐율(대지 넓이에 대한 건평의 백분율)과 3-4층의 높이, 낮은 용적율(건축물에 의한 땅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 획일적인 적층형(積層型)의 공간구성의 한계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사찰규모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상부의 도시성을 확보할 것과, △사찰의 중심공간인 법당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법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예불공간을 부가하여 의례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경 기자〉

'사원경제 활성화' 첫 세미나

사회문제硏, 종단재정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영담스님

교계 최초로 '사원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6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 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승가대 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영담)가 연구소창립을 기념하여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와 함께, 현 총무원이 표방한 '생산불교'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다.

먼저 '원시불교시대 교단의 생산관'을 발표하는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교단의 증식방법, 보시의 형태, 보시물의 관리·보존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재 불교 교단의 재산관리 현황을 분석한다.

'대승불교의 생산관'을 발표하는 곽만연교수(동아대)는 대승의 주요 경전과 논장을 근거로 대승불교가 현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을 중요시 했다고 밝히고 그 중심은 보살도, 특히 동사(同事)와 보시의 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는 '한국불교 사원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사원경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원경제의 운영원리를 제시하면서 사찰과 교회의 재정상태, 특히 수입과 자출의 구조 및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미래지향적 생산불교의 방향'을 발표하는 영담스님은 종단의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안으로 우선 종단 내부 재무구조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식의 전환을 역설한다. 또한 경험적 근거와 불교의 종지를 고려하면서 몇가지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1세기 불교의 역할

조계종 학술세미나

지난 21일 조계사 문화관에서는 조계종 봉축위원회 주최로 '21세기 인류문명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봉축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응스님(해인사)과 송희식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21세기 한국사회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과 '21세기 인류문명의 전망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현응스님은 "한국불교가 대승불교의 정신과 교리체계를 통해 선·염불·바라밀을 결합하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이 한국사회와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흩어진 원효자료 묶어 집필

김상현교수 '일서집편' 신라문화지에 발표



원효의 일문(逸文;흩어져서 그 일부만이 전하는 글)은 후대인의 여러 저술에 인용되어 단편적으로 남아오는 것이 적지 않다. 타인의 저술에 인용된 원효의 일서를 전거(典據)를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元曉云(원효가 말하길)'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원효금강반야경소云'과 같이 책이름까지 밝힌 경우도 있다.

지난해까지 원효의 일서를 찾아내거나 단편적인 글을 모아 〈新集海印經疏소〉와 〈新集金剛經疏소〉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던 김상현교수(한국교원대·사진)가 이번에는 '저서를 밝혀서 인용한' 원효의 일서를 모아 〈원효사일서집편(元曉師逸書輯編)〉을 학술지 〈신라문화〉 제10·11집에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일서 중에는 〈금강반야경소〉등 단 1회의 단편적인 인용으로도 그 저서의 유통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특히 〈金剛經義記〉〈華嚴關脈義〉〈劫義〉 등은 여러 목록에 빠져 있던 원효의 저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적멸보궁

月磨銀漢轉成圓
(월마은한전성원)
素面對光狼大千
(소면서광조대천)
蓮華山山空掩影
(연비산산공착영)
孤輪本不落青天
(고륜본불락청천)
默契菩提大道心
(묵계보리대도심)

통도사

달이 은하수를 맴돌아 둥글고 밝으니
흰 얼굴 잔잔한 빛 대천세계를 비추네
팔을 벌려 산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 하나
달은 본래 푸른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묵묵히 보리 대도심에 계합하네.

해설 통도사의 대웅전은 적멸보궁이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다. 이 적멸보궁은 신라 선덕왕 15년에 초창됐는데 수차례의 중건을 거쳐 임란 때는 완전히 불타기도 했다. 현재의 건물은 인조 19년(1641)에 우운(友雲)스님이 중건한 것이다. 15간 규모의 이 보궁은 보물 144호로 지정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건물의 외부 4면에 각각 다른 이름의 편액이 걸려 있다는 점이다. 동쪽에는 대웅전, 서쪽에는 대방광전, 남쪽에는 금강계단, 북쪽에는 적멸보궁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다.

이같이 독특한 건축물의 정면(남쪽)에 걸린 이 다섯구절의 주련은 적멸보궁의 이미지와 매우 부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달과 은하수 그리고 우주의 최대개념인 대천세계의 이미지야말로 적멸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거기에 흰 얼굴(달)로 상징되는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법의 세계에 대한 설명, 즉 '본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적멸보궁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통도사 대웅전인 적멸보궁.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

불법의 광대무변한 세계 표현

소나 돼지의 몸을 받는 까닭은

문 다음 생에 새로이 몸을 얻는 윤회의 과정에서 새로 태어날 생명은 업식으로 인해 육신을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나 돼지, 인간의 몸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최영철·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답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세상 다 살고 갈 때에 재물은 대문안에 놓아두고 처자식은 동구밖에서 작별을 고할뿐입니다. 따라오는 것은 업식밖에 없는데 이 업식이 본성을 가리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 업식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돼지처럼 살았으면 돼지가 될 것이고 독사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독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한치의 에누리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 우주법계가 다 알고 모든 만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은 것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회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다만 업식으로 말미암아 돼지가 접하는 데로 들고, 소가 접하는 데로 들기도 하고 인간의 자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치는 마치 상점에 가면 배는 배끼리, 사과는 사과끼리 진열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업식이 들어가 부모의 정혈을 빌어 몸을 집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 즉 불성과 계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업식은 생전에 돼지짓을 했으면 돼지자궁이 고래등 기와집인줄 알고, 독사짓을 했으면 독사의 벗속을 또 대궐처럼 느끼게 됩니다. 전자에 사람으로 살다가 독사굴로 들어가니 몸받아 나와서야 비로소 인간으로 살던 습 때문에 그냥 독사지옥을 느끼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로 이 몸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 진화하라는 것입니다.

꾸어준 돈 받지 못해 괴로워

문 남에게 돈을 꾸어주고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심으로는 '전생에 진 빚이라 빚 갚는다고 생각하자' 하면서도 미련이 남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우기 상대가 친형제라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형숙·서울 구로구 시흥1동〉

답 세간법칙대로라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마음이 편하겠지요. 아니면 본래부터 내 것은 없으니 재물을 나누었다, 무주상 보시를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또 질문하신 분처럼 '전생에 진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마음 편한대로 하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마음 편한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생각 돌려 해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말씀인데 돈을 못받는 이유를 이리저리 헤아려 본들 사량분별로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냥 턱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도 주인공의 몫, 돈을 받는 것도 주인공의 몫이다. 전생의 빚을 갚은 것이라면 그 또한 주인공의 몫이고, 나눔의 삶을 살라함도 주인공의 몫이다. 그러니 주인공이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으려 해도 잘 놓아지지 않으니 방법을 일러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놓음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놓아지지 않는 것인데 방법을 찾다니요?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굳게 믿고 턱 맡겨 놓으세요. 사량분별이 붙어서는 안됩니다. 굳게 믿을 때 그런 믿음엔 공덕이 있습니다.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에너지가 빠지는 경험 자주해

문 잠이 들기전에 저는 가끔 제 몸의 에너지가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일정한 방향으로 쭉 빨려드는 것같은 상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숨이 막히는 것같아 번번히 끝까지 닿지는 못합니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권명주·대구시 북구 산격3구〉

답 공부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경계가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계라도 그것은 참다운 도가 아닙니다.

옛날 선사들께서는 공부중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예로 들며 '그 또한 마군의 경계'라고 하셨습니다. 제 몸에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현상을 통해 무엇을 새삼스레 알려고 하지도 말고, 공부가 익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지도 말고, 그냥 방하착(放下着)하세요.

그것도 본성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그 자리에 되놓는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현상들이 건강상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주인공에 맡기면 익힐 것은 익히고 모자라는 것은 절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에 일체를 맡기고 관해 보세요. 분명코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애가 무서운 병에 걸려

문 아이 엄마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제가 손자를 맡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애기가 병이 났는데 병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선 암인 것 같다고도 합니다. 너무 딱하고 물상하니 스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순·경기 수원시 이목동〉

답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치료사도 아니구요. 하지만 그게 다 업식으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것을 녹이는 방법은 '바로 일체는 한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한마음 속에서만 업식을 녹이고 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강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한편으로 치료할 것은 하면서 말입니다.

화제의 신간
창작예언소설

현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지구와 인류에게 대위기가 발생,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숨어서 침묵하던 도인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현인들은 침묵하지 않는다.
지구 인류의 대위기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지극히 합리적인
자아완성의 수행법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과
옛부터 비밀리 전해지던 금단의 비전이
드디어 공개되는데 ……



김일하 지음/값 6,000원

법보시

관음독송정진 시리즈

1. 우리말금강경(심재열/ 값 2,000원)
2. 한문금강반야바라밀경(심재열/ 값 2,000원)
3. 우리말불설아미타경(심재열/ 값 2,000원)
4. 한문불설아미타경(심재열/ 값 2,000원)
5. 우리말천지팔양신주경(이청범/ 값 2,000원)
6. 한문불설천지팔양신주경(이청범/ 값 2,000원)
7. 우리말 예불대참회문(심재열/ 값 2,000원)
8. 지장보살본원경(동봉/ 값 6,000원)
9. 원각경 보안보살장·팔양경(경흥/ 값 2,500원)
10. 천수경(근간)
11. 부모은중경(근간)
12. 관음경(근간)

법보시용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관음출판사 전화/921-8434 팩스/929-3470

중앙승가대학

사회 문제 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

사원 경제 활성화 방안
— 미래 지향적 생산불교 방안모색과 관련하여 —

식순

- 삼귀의
- 반야심경
- 인사말씀 설정스님(종회의장)·송산스님(학장스님)
  세미나사회: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 제1주제: 원시불교의 생산관
  발표자:정인스님(중앙승가대,종회의원) 토론자:박경준(동국대)
- 제2주제: 대승불교의 생산관
  발표자:곽만연(동아대), 토론자:연기영(동국대)
- 제3주제: 한국불교 사원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자: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토론자:지명스님(총무원 기획실장)
- 제4주제: 미래지향적 생산불교의 방향
  발표자:영담스님(본 연구소 소장), 토론자:현근스님(종회의원)
- 지정토론: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

▌날짜: 불기 2539년 4월 26일(수)
▌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조계사 문화교육관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 위원회
중앙승가대학 사회문제연구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경공덕원 개원 및 출판기념법회

佛法僧 삼보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출가제자 佛恩은 삼가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자비의 손길을 펴신 지 어언 삼천 여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많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지 못하고 한량없이 망망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이 부평초 같이 떠돌기에 한마음 일으켜 여기, 사경전문 수행도량인 사경공덕원의 문을 엽니다.

뜻과 원력은 크오나 역량은 그에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분심을 발하고 용맹심을 세우되 맹세코 중생제도하기를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력을 임하고자 합니다. 산승이 이제 미약한 정성을 다하여 사경공덕원을 개설하옴은 감히 한 표주박의 물로 산불을 끄려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러러 바라옵건대 삼보와 관음의 힘을 빌어 이와 같은 큰 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이번에 출간되는 사경본 「관음경」, 「관음예문」, 「반야심경」과 아울러 양효숙 보살님의 사경수행 발원문 모음집 「솔바람 허허로운 깨달음의 뜨락」의 출판기념법회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삼생에 인연 있는 불자님들과 더불어 그 자량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사경공덕원 원장 한불은 합장

- 일시: 1995년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 장소: 녹수청산(현대불교 지하)
- 전화: (02) 739-3811, (0338) 73-8556
- 팩스: (02) 730-9655

※출판기념법회에 동참하시는 분들께는 「솔바람 허허로운 깨달음의 뜨락」을 글쓴 이 양효숙님께서 친필 서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경본 「반야심경」도 온가족이 함께 사경할 수 있도록 법공양 드립니다.



수요 인터뷰

"청년 불자 운동 평생불사 입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지난 16일 (가칭) 사단법인 '대불'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이사장에 명호근 쌍용증권사장(대불련 1기)을 선출했다.

이날 명호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불련 동문들이 앞장서 제2의 대승운동을 펼치자"고 말했다.

법인등록을 남겨놓은 이날 총회에는 전국에서 2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니다. 학술원을 중심으로 정기, 순회법회를 개최하고 신앙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결사로는 6일, 6개월, 6년결사로 나누어 대학의 기본교육위에 수행과 교학을 갖추도록하고 학술발표회 및 불교시민논단을 개최해 각분야 전문가를 시민의 광장으로 모셔 새시대불교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대불련 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 이사장 명호근씨

학술원 중심 전문인력배출·신행결사 주력
2만동문 포교사로…사회활동도 적극 전개

오랜 침묵을 깨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2만명의 대불련동문을 하나로 모아 불교발전을 꾀하고자 힘쓰고 있는 명호근 이사장을 만났다.

해외동포와 다각적 교류

-대불련동문회 숙원사업인 사단법인 '대불'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교계에서는 엘리트불자들이 법인단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5월 1일 문화체육부에 법인등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년간 정열을 쏟았던 사업이어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청년불자운동은 저에게 있어 '평생불사'입니다. 대불련이 학생불교운동의 시작이라면 대불련 동문회는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는 법인체는 청년운동의 완성을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앞으로 '대불'에서는 전국의 동문과 불자들을 불교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사회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동포와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각지의 문화와 정보를 한발 앞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불교계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불련 동문회가 담당해야할 몫은 무엇입니까.

▲물론 인재배출입니다. 대불련은 가장 훌륭한 인재배출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동문회도 전회원을 포교사로 만드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불'은 회원들을 포교사로 양성하기위해 이미 산하에 5~6년 과정의 불교전문인력양성소인 학술원을 두었습니다. 청년불자운동은 저에게 있어 '평생불사'입니다. 대불련이 학생불교운동의 시작이라면 대불련 동문회는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는 법인체는 청년운동의 완성을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앞으로 '대불'에서는 전국의 동문과 불자들을 불교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사회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동포와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각지의 문화와 정보를 한발 앞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불교계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불련 동문회가 담당해야할 몫은 무엇입니까.

▲물론 인재배출입니다. 대불련은 가장 훌륭한 인재배출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동문회도 전회원을 포교사로 만드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불'은 회원들을 포교사로 양성하기위해 이미 산하에 5~6년 과정의 불교전문인력양성소인 학술원을 두었습니다. 대불련 동문들은 저에게 있어 '평생불사'입니다. 대불련이 학생불교운동의 시작이라면 대불련 동문회는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는 법인체는 청년운동의 완성을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앞으로 '대불'에서는 전국의 동문과 불자들을 불교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사회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동포와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각지의 문화와 정보를 한발 앞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불교계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불련 동문회가 담당해야할 몫은 무엇입니까.

▲물론 인재배출입니다. 대불련은 가장 훌륭한 인재배출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동문회도 전회원을 포교사로 만드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불'은 회원들을 포교사로 양성하기위해 이미 산하에 5~6년 과정의 불교전문인력양성소인 학술원을 두었습니다. 대불련 동문들은 저에게 있어 '평생불사'입니다. 대불련이 학생불교운동의 시작이라면 대불련 동문회는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는 법인체는 청년운동의 완성을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앞으로 '대불'에서는 전국의 동문과 불자들을 불교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사회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동포와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각지의 문화와 정보를 한발 앞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동안 대불련동문회는 서울 동문들의 친목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불'은 조직정비가 당면과제입니다. 먼저 중앙(서울 경기 강원), 대충(대전 충청), 호남(광주 전라), 부경(부산 경남), 대경(대구 경북)교구등 5개 지역을 연합체로 나누어 활성화 할 것입니다. 동문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5년단위로 묶어 6개의 세단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실무사업으로는 주소록에 주요 불교정보를 첨가해 정보화시대의 동문주소록이 되도록 하고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결연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한글교육, 농어촌 특산물 직판사업도 계획중입니다.

대불련동문들 가운데는 승려 1백여명등 의사 변호사 공무원 사업가들이 각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제역할을 하고있는 대불련 동문들이 곧 불교의 큰 재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새로운 신앙결사운동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의 목적, 취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대불련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대불련은 참다운 구도자, 생명가치 구현, 복지사회 건설이란 삼대강령이 있습니다. 동문회도 대불련의 강령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63년 대불련이 창립되던 때만해도 불교는 깊은 산사에서 펼쳐지는 기복신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대불련이 현대화된 법회를 개최하면서 불교의 대중화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것은 학교졸업후 동문들이 개인차원에서만 신행에 임하고 단체차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인체 '대불'은 동문들을 포교사로 만들기 위한 결사입니다. 포교하면서 공부하는 대불련동문이 되도록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사장님은 대불련 1기로서 30년넘게 불교운동을 펼쳐온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불련은 어떻게 창립되었습니까.

63년 8월부터 활동시작

▲60년대 초반만 해도 산발적으로 대학마다 불교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63년 8월 서울소재 17개 대학과 육 해 공 삼군사관학교 대표들이 조계사에서 모였어요. 대학생 불교활동을 조직적인 연합회 활동으로 발전시켜 청년불교 운동에 앞장서고 불교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지요. 창립발기위원회를 발족하고 봉은사에서 일만배의 원력으로 발원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대에서는 서돈각 박사가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창립멤버들이 서돈각박사 댁에서 수행을 하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창렬동문과 함께 탄허스님을 찾아 경전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의 용맹정진이 오늘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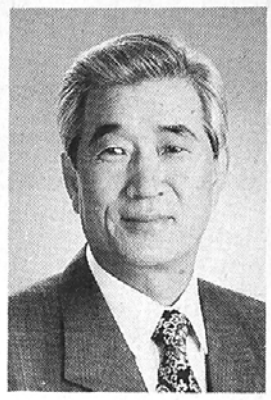
-대불련도 X세대들로 불리는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대간의 차이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선배로서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답게, 불교인답게 공부와 수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후배들을 볼때마다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창립당시와 비교하면 공부가 미약한 편입니다. 교리와 수행이 겸비된 불자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준엽 기자〉

나의 수행일기

서석재 〈총무처 장관〉 (하)



이따금 바쁜 나날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귀의한 마음을 지극히 하여 수행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같은 수행에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뉘우치지 않을 수 없다.

워낙 바쁜 하루하루이므로, 그렇다고해서 당장 말뚝 신심을 내어 정진을 할 사정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가장 진지한 수행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유익하게하는 지혜를 터득하려는 발원을 굳게 하고 있다.

내가 지난 몇해동안 허울 좋은 이름으로 조계사 신도회 회장직을 맡은 적이 있으나 그 직분에 충실한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 보충해야 할 공부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다.

내가 이루어야 할 공부로서의 숙제가 성철큰스님과 같은 무서운 정진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정수동이 대성통곡한 생로병사에 대한 깨달음은 늘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다.

조계사 신도회장 뿐 아니라 나는 의정단상에서 일할 때에는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

세상 유익하게하는 지혜터득 발원
아무리 바빠도 법구 몇구절 꼭 독송

서 의원 불자임을 자임해서 이런 저런 불사에 동참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깊은 신심을 내어온 꾸준한 공부는 할 겨를이 없게 이 나라 정치가 그렇듯이 나도 파란많은 시기를 살아온 것이다.

요즘은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법구경이나 금강경의 몇 구절이라도 독송하며 그 뜻을 새기는 틈을 내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수행이라고 내세울 처지가 아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내 어줍잖은 불자 행세로라도 장차 내가 부처님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것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이므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이기 십상이다. 이 나라의 공직자란, 더구나 그 공직자들을 관리하는 공직의 책임 있는 자리란 마치 농부와 같다.

농부는 공장 노동자와 같은 시간제의 일꾼이 아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논에 나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서 논에 나가 있어야 한다.

저녁에 삽을 씻어들고 집에 왔다가도 밤중에 다시 물꼬를 돌보러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전천후적인 일이 농부의 일인 것이다.

나도 그런 농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은 농부더러 "나도 농부요, 나는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요"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다.

아니 나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농부야말로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처지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치는 현실의 일이다. 종교는 현실의 일인 동시에 현실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 직업은 종교의 생활을 하기에는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이야말로 불법이 나타나는 대승의 도량이라고 보면 나는 이미 그 도량 안에서 살고 있는 종교인인 것이다.

다행히 휴일을 이용해서 산에 오르는 일로 건강을 돌보고 있다. 그런데 산에가면 반드시 그 산을 주재하는 듯한 사찰이 있다.

그 사찰의 법당에는 부처님이 계신다. 나는 그 부처님께 때로는 3배, 때로는 9배, 때로는 108배의 절을 한다.

그러노라면 가만히 앉아계신 부처님이 나를 내려다 보며 빙그레 웃으시 것도 같다. 내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일은 부처님과 내가 한마음의 세계를 이루는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

나는 일주일의 격무에서 이렇게 풀려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나 나는 수행을 말할 만큼 무엇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 그저 이 세상의 수많은 불자 가운데서 그 꼴찌로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 싶다. 그러노라면 나도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나는 등산의 하루가 내 어줍지 않은 수행의 하루이기도 하다. 내 입속에서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이 흘러 나오며….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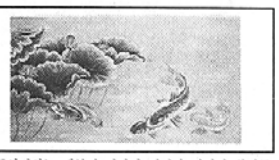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조문객 -접대용식- 육개장·대구탕 外 콩어회·조유어·묵어쌈 등 이조 924-9211 과냥 925-4961 소모품 제공·봉사요원 파견

크리아 요가원 요가는 강인한 체력과 아름다운 몸매를 약속하며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발견한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402호) 전화:738-1291, 356-4271(직)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지방·외국 어디나 그림인 또는 표구작품을 배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02)3273-0081 온라인: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탈종공고 대한불교 미타종 종정 법하 주소: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421-24호 사찰명:심연사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이에 공고함 1995년 4월 일 심연사 주지 이해준 합장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02)552-1470(대) / 팩스: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467-8329 ■호출기:012-307-8329 박석언 합장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름,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능사가 시공함 불심과 공익 완벽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테리어 대표:허성호(공법) 전화번호 주 야:4242-511, 4822-511, 4252-025 FAX 477-2751 호출기:012-274-1727, 012-804-2025 휴대폰:011-267-2510 주 소: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11(삼전불교종합복지회관 옆)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법상·경상 •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용각 복천합 •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벌봉사):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회곤 불사, 그외 다수 시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긍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02)556-3076-7 ■팩스:(02)556-3078

사무실 및 강의실 같이 쓰실 분 강의실 완비 15평 ●위 치:조계사 부근 보증금:無·불교단체 환영 ●문의처:☎ 738-1291 동산불교대학 동창회

암은 이렇게 완치된다. 배일주 著 한성사

암은 이렇게 완치된다 ■완치된 암환자들의 투병기 수록 ■사형선고를 받은 말기 암환자들의 대학병원 자료와 완치되는 과정을 촬영한 C-T 필림 자료 공개 ■이 한권의 책이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책 ■저자의 젊은 청춘을 바쳐 연구한 신비의 天地散의 비법과 암 예방법이 수록되다. 책 문의는 도서출판 한성사 (02) 841-7798, 388-0005 저자 배일주 합장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1〉

天台圓法師自誡(천태원법사자계)

三界悠悠一宅寄 羈鎖生靈受酸楚
삼계유유일영오 기쇄생령수산초
本來面目久沈埋 野馬無羈塵羈鼓
본래면목구침매 야무무강자표고
欲火燒殘功德林 逝波傾入無明塢
욕화소잔공덕림 서파경입무명오
紛紛萬類器中蚊 呶呶鳴劇沈還樂
분분만류기중문 추추명란침환거

삼계의 저 아득한 감옥에 생령을 고삐 사슬로 묶어서 신산고초를 받게 하누나.
본래 면목이 오래도록 파묻히니 야생마(분별 사량식) 고삐없이 제멋대로 날뛰도다
욕심의 불은 공덕의 숲을 태우고 흘러가는 물결 (번뇌 상념 또는 제8아뢰야식)은 무명의 둑안으로 쏠리나니
어지러이 벌어진 만류는 한그릇 가운데 가둔 모기·벌레 따위라 찍찍대며 우는 소리가 어지러히 끊겼다 다시 들리다 한다.

亦會天帝殿中遊 也向閻公鍋裏煮
역회천제전중유 야향염공과리자
循環又撞入胞胎 交構躍躁成沫聚
순환우당입포태 교구성조성말취
一包膿血聚扶持 數萃白骨權撑柱
일포농혈잠부지 수경백골권탱주
七情靦騎不知歸 六賊爭鋒誰作主
칠정치기부지귀 육적쟁봉수작주

일찌기 도리천 제석궁서 놀다가 염라대왕의 끓는 가마솥으로 들어가 삶아졌고
돌고 돌아 또 태속에 드니 고기덩이로 엉켜 거품같은 육신 이루었도다
한 보따리 피와 고름(체액) 잠시 붙들어서 몇 줄기 흰 뼈로 버팀기둥 세웠나니
칠정(오욕칠정)은 걷잡을 수 없이 달려 회귀할 줄 모르고 (내관이 안됨) 육근육적은 날카로이 다투니 누가 주인이리오.

春風不改昔時波 依舊貪嗔若狼虎
춘풍불개석시파 의구탐진약랑호
改頭換面弄機關 忍氣吞聲受辛苦
改頭換面弄機關 忍氣吞聲受辛苦
개두환면롱기관 인기탄성수신고
貴賤賢愚我與人 是非榮辱今猶古
귀천현우아여인 시비영욕금유고
金烏玉兎自磨空 雪鬢朱顏盡成土
금오옥토자마공 설빈주안진성토

봄 바람이 옛 물결 고치지 아니하니(새 몸 받았으나 숙세의 습은 고쳐지지 않았으니) 예나 다름 없이 탐진은 마치 이리·호랑이처럼 사납도다.
머리 고치고 얼굴 바꾸고 기관을 희롱해도 (예전 모습과 다른 모습 지녔어도) 기운을 참고 소리를 머금어 (한과 슬픔을 머금었으니) 신산고초를 받는구나
귀·천·현·우·나와 남의 분별, 시비와 영욕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지라
금까마귀(해·낮) 옥토끼(달·밤)가 절로 허공을 가르니 흰 수염 (늙은이) 붉은 얼굴(젊은이)이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我嗟曾地一何晩 隨波逐浪空流轉
아차별지일하만 수파축랑공유전
追思古聖與先賢 掩袂令人獨嘗艱
추사고성여선현 엄메령인독수난
而今掘土主人翁 生死覺來我誰管
이금촉주주인옹 생사마래아수관
昔時技兩莫施呈 今日生涯須自勉
석시기량막시정 금일생애수자면

슬프도다, 내 깨달음이 어찌 이리도 늦어져 번뇌물결 따르며 헛되이 생사를 돌고 도는가.
옛 성현들을 생각하니 소매로 얼굴가리고 남(성현) 보기 부끄러워 홀로 얼굴 붉힌다.
이제라도 주인옹(참나, 진심)을 다 잡아두면 생사의 마군이 오더라도 누가 나를 관리하랴
옛 재주 드러내려 하지 말고 금생에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힘쓸지어다.

是非窟裏莫回頭 聲利門前高着眼
시비굴리막회두 성리문전고착안
但於自己覓悠尤 肯與時流較長短
단어자기멱견우 긍여시류교장단
一點靈光顧晦西 萬端塵事任舒卷
일점령광직조서 만단진사 임서권
不於鏑角猥虛名 獨向金臺預高選
불어와각절허명 독향금대예고선

(세간사) 시비의 굴속에 머리를 돌리지 말고 명성과 이익의 문 앞에서 눈을 높이 뜨라 (명리를 대수롭게 보지 말라)
다만 자기(내면 마음자리)에게서 허물을 찾을지언정 어지 시류로 더불어 잘 잘못을 비교하랴
한 점 신령스런 빛 (마음의 빛)이 서방을 비추면(회광반조의 뜻) 만가지 티끌세상 일에 쥐고 펴는 것 자재하리라.
달팽이 뿔 (보잘 데 없는 것)에서 헛된 이름 도적질하지 말고 홀로 금대(부처자리)를 향해 선불당에 참예하라.

從他病死與生老 只此一回相捨惱
종타병사여생로 지차일회상괄뇌
修行惟有下稍難 堅起脊梁休放倒
수행유유하초난 수기척량휴방도
莫教錯認定盤星 自家牢守衣中寶
막교착인정반성 자가뢰수의중보
願司法戒冤與親 共躡白牛遊直道
원동법계원여친 공가백우유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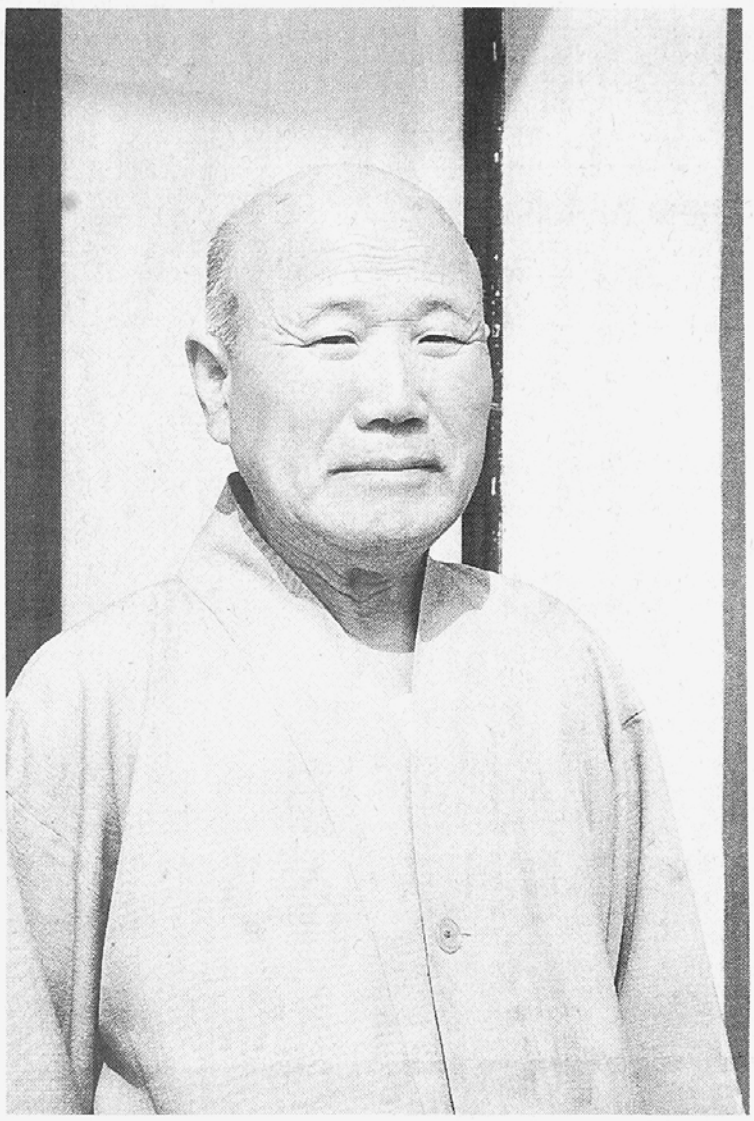
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내버려두고 다만 한번 돌아보고 괴로워 할뿐
수행은 오직 맨 끝에 가서 어려움이 있으니 허리 곧추 세우고 그릇된 생각을 쉬어라
정반성(저울의 첫눈·무게에 관계 없는 자리·제 8식)을 그릇 알아 가르치지 말고 제 옷 가운데 보배(법화경 수기품의 비유·참나)를 굳게 지켜라
온 법계의 원수와 친한 이 다함께 흰소(일불승)에 멍에 걸고 직도(열반 해탈의 도)에 놀기를 바라노라.

龍眼

헛된이름 도적질말고 부처자리 참예하라
이제라도 진심 잡아두면 누가 나를 관리하랴

★ 지상법석

"지극한 원력과 실천 있으면



도원스님 〈고운사 조실〉

악력
- 1921년 9. 15. 生
- 41년 만공스님 은사로 해인사에서 득도
- 해인사강원 대교과 졸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현 삼보사 주지

"중생의 마음은 본래 공적(空寂)한 것이예요."
깨달았느니 깨닫지 못했느니, 점수(漸修)니 돈오(頓悟)니 갖다 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말과 물건도 붙지 않는 곳이 중생의 근본 자성(自性)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법자(求法者)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중들은 그들의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은 달라도 모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과 먹을 것과 권력을 대중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거룩한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참구하는 수행자들이죠. 법(法)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걸 구하려는 사람들이지요. 가장 커다란 무엇을 얻으려는 자들이 바로 구법자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도 얻으면 내어놓을 때가 있어요. 대통령 자리도 금은보화도 언제까지나 '내 것'으로 남아 있을 순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법' '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위대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법이지요.

세상의 영화는 사라지는 것 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

이 세상의 수 많은 중생들은 대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원력을 성심껏 세운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지극한 정성과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선업(善業)을 쌓으려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선업보다도 무업(無業)이 더 좋겠지만…. 업의 종류는 수백 수천가지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업 조차도 없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우선은 선업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 일이 사회인들로서는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는 금생에 도를 얻고 여래지(如來地)에 들면 다행이거니와 만약 대도(大道)와 정법(正法)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이것을 이루려는 서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승지겁(阿僧祇劫) 이후라도 그 결실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중생은 대도를 이루지 못하는 한 사생(四生) 육도(六道)의 윤회를 되풀이 해야 합니다.
중생의 아집과 그릇된 견해, 번뇌와 선(善) 그리고 악업 등으로 인해 중생은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으로 거듭 나면서, 육도의 윤회전생을 계속합니다. 중생은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도를 돌면서 흥망성쇠를 되풀이 하며 정신적인 진화를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하나되는 그릇

정법의 자리는 이런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난 삶과 죽음이 없는 세계로서 영원한 행복과 안락을 누리며 우주와 하나 되어 자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법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큰 법을 얻고 삼계를 벗어나 다시금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전해져 온 기복(祈福)불교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의 세계에서는 이 기복불교가 정법은 아니기에 다만 방편으로서 이를 활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 세계에서는 당장 필요한 것이 삶의 안락과 생존을 위한 보이지 않는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기복불교가 만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무조건 배격하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나 아들 딸 잘 되라고 하는 기도는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이지요. 하지만 커다란 정법을 얻어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려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법을 얻어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마르고 허공이 꽉 차도록 대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 후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같은 어른들을 본받아야 해요. 그들은 자신을 버리고 온 중생을 위해 원력을 세우기에 중생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부와 보살이 대보살이 되려면 보리(菩提)의 지혜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는 소승과 대승의 법이 있지만 두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승의 법을 따라 수행을 하면서도 대승의 대보살이 될 수 있어야 해요. 그

불교성지순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 출 발 : 6월 3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 발 : 6월 2일
· 동참금 : 118만원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6월 4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 출 발 : 6월 5일
·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5월 30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십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 발 : 6월 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10일
· 출 발 : 5월 27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 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쟝쩨－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 도·네팔·태국 10일
· 출 발 : 5월 26일
· 동참금 : 15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한국음식 제공■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지상법석 ★

누구나 대보살 될 수 있어"

마음을 참구하는 수행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래야 진정한 대장부이지요. 대장부는 자기를 잊고 우주와 하나되는 그릇이기에 중생을 남이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있게 방편을 사용하고 방편을 통해서 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여(如如)하게 되었을 때 중생제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겠지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쉼없이 정진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정진해 공법(空法)과 무상법(無常法)을 요달했을 때 모든 지혜와 방편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와같은 최상승의 법을 얻기 위해서는 일념(一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일념으로 인해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능력인 신족통(神足通)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宿命通) 누진통(漏盡通) 등 육신통은 모두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법력입니다. 법을 구하려는 자는 이 '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구도자입니다.

대진리가 숨어있는 이 무심경계(無心境界)를 꿰뚫은 이들이 바로 불·보살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 먹은대로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경지는 마음을 통해 열리고 나타납니다. 모든 여래의 법은 오직 마음을 열어 마음의

부질없는 집착 버려야

이치를 깨닫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마음 수련을 통해 '공법'을 이해하게 되면 편안하게 사물을 관하고 거기에 응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중생들은 항상 심신이 편안치 못하고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몸이 없다는 걸 관(觀)해야 공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생로병사가 있는 이 몸에 '공'의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끝없이 잡념에 싸인 생각을 버리고 버려야 해요. 망상을 버려야 내 육체가 있어도 '공'함을 보고, 상(相)을 버리게 됩니다.

망하고 흥하고 얻고 버릴 것도 없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하면 늙고 병들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부질없는 집착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른 생로병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려는 것은 신선(神仙)의 도를 닦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렇게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자비를 내는 불제자들은 중생과 함께 살면서 중생을 바른 길로 제도합니다.

행주좌와(行住坐臥) 하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을 깨어 있는 상태로 두어 편히 사물을 관하다 보면 인생의 생로병사를 자연히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은 경계에서의 정법생활은 수행의 과정처럼 괴롭지 않고 즐겁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중생에게 법을 설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는 제불보살에게 입은 은혜를 다시 중생에게 갚는 하나의 인연법이지요.

중생에게 베푸는 보시에는 금은칠보·꽃·차(茶)·사람·법보시 등이 있지만, 단연 법보시가 가장 고귀한 겁니다. 물질적 보시는 순간의 괴로움을 잊게 하고 즐거움을 주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은 배가 불러도 돌아서면 배가 고파지듯이 물질적 보시는 스쳐 지나가는 겨에요. 그러나 법보시는 보시 받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 씨앗이 되므로 영원한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법보시는 어두운 밤을 밝히듯 미혹한 중생의 마음을 지혜로 이끕니다.

오늘날 과학시대에도 보살사상에 대한 연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만이 잘 살기 보다는 서로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겠기에,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보살의 정신을 구현해야 합니다. 대보살은 세상의 희로애락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초월해 평화롭게 사는 길을 인도해 줍니다.

좋아도 좋은 것이 아니요, 싫어도 싫은 게 아닌 최상승의 공법을 얻어야 대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공법'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정진을 부지런히 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론 부족합니다. 전생과 금생에 지은 죄업을 남김없이 뉘우치고 참회해야 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업이 얽히고 설켜 정신을 괴롭히고 생활을 고단하게 합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이 그릇을 닦고 음식을 담아 먹어야 하듯이, 새로운 삶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구법자들은 구습을 닦아내기 위한 참회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몸을 씻고 새옷을 입는 마음으로 신심을 발해 정진할 때 정법을 향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중생을 괴롭히는 악의 근원인 나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삼독심(三毒心)을 물에 빨듯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수행의 전제로 삼아야 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아들과 딸을 살해하는 등도 보도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탐·진·치 삼독이 극단으로 표출된 하나의 예이지요. 또한 계율을 잘 모르거나 인과법(因果法)이 무섭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계율이 바로 인과의 원리에서 나타난 사실을 알지 못하니 잘못된 행위의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행자는 일념으로 정진을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든 관세음 염불을 하든 자신이 배운 법방(法方)을 일념으로 잘 닦으면 결실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서울 가는 길은 사방으로 나 있지만 서로 통하는 이치와 같지요. 참선 진언 염불 독경이 방법은 달라도 일념으로 정진하면 모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매일 중생제도 서원을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참선으로 깨달은 이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참선이 유명하지요. 오늘날 방방곡곡의 깊은 산중에서 '이 뭣고'하며 참선하는 큰스님들이 많습니다. 거사님 보살님들도 참선을 많이 하시지요.

내 마음을 관하고 진리를 찾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똑바로 알아야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생활을 해서는 아무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90살까지도 자기 몸은 자신이 간수해야 하는 때입니다. 옛날처럼 나이 대접 받고 편안히 여생을 마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불제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승속(僧俗)을 떠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과 지혜를 두루 갖춘 대실력자가 되어 이 세상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서원(誓願)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삼독심 물에 빨듯 참회해야 생로병사 초월

법보시는 미혹한 중생을 깨닫게하는 씨앗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몸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공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㉔

양 형 진

불상부단(不常不斷)

존재자가 자성을 가지고 생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무자성공인 열반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 불생불멸이라 한다면, 용수보살이 불상부단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존재자의 연속성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서 상(常)이란 상주(常住)로서 변하지 않는 자성을 가지고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斷)이란 단멸(斷滅)로서 연속성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연기무자성공의 입장에서의 불생불멸이 이미 불상부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본다면 불생불멸이 생멸의 과정 즉 생멸이라는 상태 전이에 주목하는 것인데 반하여 불상부단은 생한 존재자와 멸한 존재자 간의 연속성에 관한 논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불상(不常)은 일단 생한 존재자가 생이란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단(不斷)은 멸한 존재자의 멸이란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생(生)과 상(常)을 혹은 멸(滅)과 단(斷)을 같은 의미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보자. 수소분자는 수소 원자 두개가 결합하여 이루어 진다. 이때 수소분자를 이루는 두 개의 원자는 결합하기 이전의 원자와 어떤 관계에 있게 되는지를 불상부단과 연관시켜 보자. 수소 원자란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의 양성자 주위를 하나의 전자가 도는 것이다. 수소분자란 두개의 양성자 A와 B가 어느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양성자 주위를 두개의 전자가 도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수소분자의 상태가 말랑말랑한 공 두개를 풀로 붙여 놓은 것과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공 두개를 붙여 놓았다면 각각의 공은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게 된다. 수소분자의 경우가 이러한 공의 경우와 같다면, A라는 양성자 주위를 돌던 전자는 수소 분자로 결합되고 나서도 그대로 양성자 A의 주위를 돌아야 되고, B라는 양성자 주위를 돌던 전자는 그대로 B의 주위를 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수소 분자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 A라는 양성자 주위를 돌던 전자나 B라는 양성자 주위를 돌던 전자가 모두 똑같이 양성자 A와 B의 주변을 돌며,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게 된다. 양자역학은 다만 두개의 전자들이 공간상의 각 점에 있을 확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뿐이다. 그렇다면 어느 전자가 양성자 A의 주위를 돌고 있던 전자였는지를 말한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 우리가 수소분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두개의 전자가 양자역학의 해가 제시하는 확률분포를 따라 두개의 양성자 주위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수소 분자는 수소원자의 상태가 그대로 연속 된 상(常)의 상태가 아니므로 불상(不常)이다. 그러나 수소분자가 수소원자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둘을 단(斷)의 상태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또한 부단(不斷)이다. 결국 수소원자와 수소분자의 관계는 상도 아니요 단도 아니니, 불상부단일 수 밖에 없다.

불상부단의 논리가 원자의 세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목재를 다듬어 집을 짓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기둥을 이루는 어떤 목재의 기능은 집이라는 구조물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집을 떠나서 기둥이라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둥을 이루는 목재는 예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불상이며 그래도 예전의 상태로 부터 연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단이다. 이러한 논의는 싹과 씨에 대해서도 역시 성립된다. 싹은 씨에 연유하여 소생하지만 싹을 씨라고 할 수는 없다. 싹이 씨에 연하여 소생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단이요, 싹이 소생하여도 씨는 이미 멸하였으므로 불상이다.

싹과 씨, 목재와 집, 수소원자와 수소분자 간의 모든 관계는 따라서 상도 아니요 멸도 아니다. 이렇듯 인과란 자성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연기적이며 상대적이니, 단상(斷常)이라는 양극단의 견해에 떨어지지말고 연기무자성공의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불상부단이라 하겠다. 이를 용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사물이 연을 따라 생한다면 이는 원인과 같은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단멸하는 것도 아니요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중론 관법품 제18장 제10게)" "굳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에 집착하는 것이며 굳이 없다고 한다면 단멸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마땅히 있다거나 없다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중론 관유무품 제15장 제10게)" 따라서 상주라는 절대적 동일성이나 단멸이라는 절대적 차별성으로 우주를 온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연기에 의해 모든 변화와 인과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희론(戱論)을 적멸(寂滅)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는 중도사상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용수보살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며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며 불멸이고 불생인 것을 열반이라 한다.(중론 관법품 제18장 제7게)"

'있다'와 '없다'로 우주 파악하기는 불가능
오직 연기에 의해 모든 변화·인과 살펴야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95 어린이날 기념 제1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우리 어린이 불자들 가슴 속에 부처님을 모십니다.
각자마다 가장 친근하고 존경스러운 부처님을 그려 모십니다.
물론 도화지에 크레파스, 그림물감으로 그리는 것이지만
그건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일 뿐이요,
가슴 가슴마다엔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진짜 부처님이 주석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좋아요!





박유영 ('92년도 作, 은석국민학교 1학년)

● 일시 : 1995년 5월 5일 10시 ● 대상 : 전국의 어린이 불자 (국민학교 1~6학년)
● 준비물 : 도시락, 화판, 크레파스나 물감 (참가비 없음) 참가 전원 목아불교박물관 무료입장, 기념품 증정 (1,000명 선착순)
● 장소 : 경기도 여주 목아불교박물관 0337) 85-9952 ● 참가신청 : 전화 02) 420-3200 월간「불광」(95년 4월 25일 까지 접수)
● 시상 :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10명, 특별상(단체상), 각 부문 상장및 상품 (심사 : 한국불교미술인협회 소속 화가)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 지도자 연합회, 한국불교 미술인 협회 /주최 : 월간「불광」, 목아불교박물관 /후원 : 불광사 불광법회, 칠보사, 재단법인 보덕학회, 도솔회, 불교 TV, 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월간 동쪽나라, 도서출판 단이슬

고은 불교 대하소설

하루하루가 평상심

사실 수원 수월들은 그 국제 무역선단에서 뼈가 굵은 뱃사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거기에서 필요했던 잠상(潛商-暗商)의 문자 풍역을 겸한 서사(書士)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들이 처음과는 달리 병이 생기는 등 뱃길에 적응할 수 없어서 총사령 우공으로부터 미리 받은 몸값을 다 때우기 전에 우공의 독선과 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선단을 떠날 뜻이 모락모락 생겨났던 것이다.

이런 박동만에게 장일순도 뜻을 함께 하던 중 두번째 탈출 시도에서 무욕도의 구제를 받아 수원과 수월로 번신한 바였다.

요컨대 수원은 어느 곳에서나 일단 적응하지 못하는 시련을 받아야 하였다.

그 무역선단의 뱃길에서도 이곳의 수행에서도 그는 병을 앓아야 했던 것이다. 좌선에서 단전(丹田)의 열이 머리로 온통 올라와 열꽃이 핀 것도 그에게는 비껴갈 수 없는 절차나 다름 없었다.

바로 그런 열꽃이 누가 깨끗하게 씻어준 것처럼 없어져서 수원의 얼굴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인담이 "바람이 씻어준 것이겠지"라고 한 말은 허드랫말이 아니었다.

이제 수원은 그의 첫 발심(發心)이 어쩌면 저 난바다 위의 하늘에 닿아있는 무심(無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의 친구 수월이 옛날 얘기로 수원의 깨끗해진 얼굴을 격려하였다.

노나라 자경은 名琴을 만들때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몸뚱어리 조차 잊은채 일념에 파묻혀 일체의 일상사를 다 여의었다.

"자네는 이제 자경(梓慶)의 금(琴)을 만들 만한 경지일세"

"무슨 말인가. 나에게 지나친 칭찬은 독이 될 것이야"

"독이야 임금이 보내는 사약에 들어있지… 이 도량에서는 독도 약이 되고 만다네"

"무슨 뜻인가?"

"내가 옛날 중국 노(魯)나라 자경에 대하여 얘기하겠네. 노나라는 자네도 한해 전의 뱃길로 닿아본 적이 있지? 바로 이 바다 건너 조선과 가장 가까운 곳이 옛 노나라였지. 그래서 조선의 충청도 당진(唐津)에서 노나라 새벽 장닭 우는 소리를 바다 건너로 듣고 아낙이 새벽 물 길러 나가기도 했다지 않나…"

"가깝다면 가까운 곳이지…"

"그 노나라에 악기를 으뜸으로 만드는 사람 자경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납치해 가려고까지 했다는 전설이 있지… 하여간 노나라 왕이 그를 불러 술을 대접하며 명금(名琴)을 만드는 재주를 물었다"

라고 말끝을 이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자경이 몽롱하게 술에 취한채 대답했다.

"소인은 악기를 만들 때 반드시 목욕을 하옵니다. 마음을 지극히 평안하게 합니다. 목욕 뒤 3일이 되면 악기를 만들어 칭찬을 듣겠다는 생각 따위가 다 없어지옵니다. 5일이 지나면 설사 잘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난 받는데 두려워하는 생각 따위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지옵니다. 7일이 지나면 소인 자신에게 손발이나 몸뚱어리가 있다는 것도 아주 잊어버리게 되옵니다…"

"으음!"

자경은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때가 되면 금을 만드는 일념(一念)에만 파묻히게 되므로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체의 일상사(日常事)를 다 여의고 마옵니다"

"으음! 으음!"

"그런 뒤에야 비로소 산으로 들어가 나무의 성질과 모양을 관찰하옵니다"

"으음!"

"그리하여 좋은 재료가 찾아지면 그것이 금으로 완성된 것을 머리 속에서 상상하옵니다"

"으음!"

"그런 다음에야 부랴부랴 내려와서 만들기 시작하옵니다. 이는 저의 뜻을 하늘의 뜻과 같게 하고자 함이옵니다"

여기까지 말한 수월은 수원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기쁨이 채워진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수원이 한 마디 화답(和答)의 말을 꺼냈다.

"하기야 명공(名工) 자경의 경우만이 아니겠지… 우리 농투성이 농사꾼도 하루 일을 마치고 호미나 괭이를 깨끗이 씻어서 잘 챙겨두며 '자네들이 일을 다 했네 그려. 수고가 많았네'라는 인사를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연장이 하나임을 뜻하는 것이겠지… 그것은 소와 사람, 닭과 사람 심지어 달걀과 사람 사이도… 뒷동산의 소나무와 사람 사이에도 어떤 틈이 없는 것이겠지… 함께 높은 곳에 있음이 마치 구름 걷힌 푸른 하늘에 날라가는 학과 같지 않을 것인가"

"허허 정녕!"

"어찌 하늘 뿐이겠는가… 저 파도 위 갈매기들 하루내내 부지런히 사는 것 보시게나… 내 스승은 인담 우녀스님과 함께 저 갈매기들인지 몰라"

"정녕! 수원 자네가 새롭네 그려"

아마도 수원 수월들이 이번 일을 치르고 나서야 무욕도에 심신이 다 정착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전이 방선(放禪)의 한 때에 저쪽의 배 메어둔 선착장으로 가서 장난 삼아 배의 밧줄을 끌러서 저만큼 나가보았다가 갑작스러운 파도더미에 떠밀리며 삽시간에 섬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로 떠내려 간 사건이 생겼다.

무전이 더럭 겁이 났으나 그렇다고 큰 소리를 질러대지도 않았다. 아니 큰 소리를 질러보아야 파도소리에 묻힐 따름이었다.

합두가 큰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방안에서는 지붕을 이을 때 필요한 굵은 억새 새끼를 꼬고 있었다. 밖에서 할 일이지만 오늘따라 헌걸찬 만화와 과현에게 고빨기운이 있어서 방안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스님"

남각이 말하였다.

"또 어떤 손님이 오는 것이오? 이번에는"

"손님인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합두는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도 아름다웠다. 언젠가 만화가 합두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소리 공양을 드리면 어떤 심술궂은 8부신중도 남짝 엎드려 기뻐하겠다라고 슬며시 농을 던진 적이 있었다.

인담과 만화 남각들이 나와서 바다쪽을 바라보았다. 파도소리가 점점 거칠어 지고 있었다. 따라서 파도도 아까보다 더 힘이 더해지고 있었다. 배가 저쪽 먼 바다쪽에서 보이다 안보이다 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무전스님이 아닌가? 무전이 안보이니 말이요"라고 만화가 긴장하는 것이었다.

"무전스님임에 틀림없는 것 같소"라고 인담도 거들었다. 그들은 대번에 선착장으로 가서 다른 배를 띄워 파도의 물마루와 물 밑바닥을 요동치는 배위에 타고 있었다.

만화의 솜씨로 그들의 배가 표류하고 있는 배쪽으로 다가갔다. 과연 무전이 그 배의 빈 돛대에 제 몸을 동여매고 기대고 있었다. 파도더미를 능란하게 막지 못한 채 물깨나 삼켰으므로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만화의 짐작대로였다. 만화가 먼저 두 배 사이를 밧줄로 연결하고 나서 무전이 탄 배에 필사적으로 건너갔다. 만화도 물 속에 빠졌다가 뱃전을 잡고 올라가야 하였다.

섬 기슭으로 배를 대기에는 쉬웠다. 파도에 떠밀리면 되기 때문이었다.

여러 사람이 장대와 노 따위를 들어 배를 바위와 바위 사이의 모래톱에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 무전을 끌어내려서 바로 가슴과 배를 눌러 호흡을 시켰다.

처음에는 먹은 물이 한두차례 나왔다. 호흡을 계속 시키자 이윽고 그 호흡에 이어 스스로 "푸우!"하고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만화가 그런 무전의 뺨의 좌우를 사정없이 때렸다. 코피가 흘러 나왔다.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야 무전이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저승에는 아무나 가는 줄 아나?"하고 만화가 꾸짖었다.

멀뚱멀뚱 눈을 뜬 무전이 그제서야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다 보는 것이었다.

그는 배 위에서 실신(失神)하고 있는 동안의 가사(假死)상태에서 아주 행복한 사연을 경험한 것이었다.

고려말기의 백운(白雲)선사를 그 비몽사몽의 실신상태에서 만난 것이 바로 그 사연이었다.

백운은 태고(太古)보다 11세나 위였고 나옹(懶翁)보다는 30세나 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하심(下心)은 철저해서 그보다 나이 어린 두 선사를 마치 옛 조사처럼 떠받들어 스스로를 겸손한 처지로 지켰던 것이다.

"어찌 내가 태고스님과 벗하리요… 어찌 내가 나옹스님을 섬기지 않으리요. 나는 두 분을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하리"

일찌기 고부군에서 태어나 출가한 뒤 원(元) 나라에 들어가 임제(臨濟)의 맥을 잇고 있는 석옥(石屋)에게 법을 배우고 인도승 지공(指空)에게도 법을 익히고 돌아와 공민왕 2년 정월에 크게 깨친 선사가 바로 백운스님이었다.

뒷날 고려말의 이색(李穡)이 서문을 쓴 백운어록이 남아 있고 또한 그가 초록(抄錄)한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2권이 있는데 이것의 흥덕사 주조본(鑄造本)이 바로 세계 최고(最古)의 주자본인 것이다.

어쨌거나 무전은 그가 만난 백운스님에 대한 사연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음 깊이 심어두었을 뿐이다.

"어찌 하늘 뿐이겠는가… 저 파도위 갈매기들 하루 내내 부지런히 사는 것 보시게나… 내 스승은 인담 우녀스님과 함께 저 갈매기들인지 몰라"



24



그림 · 조향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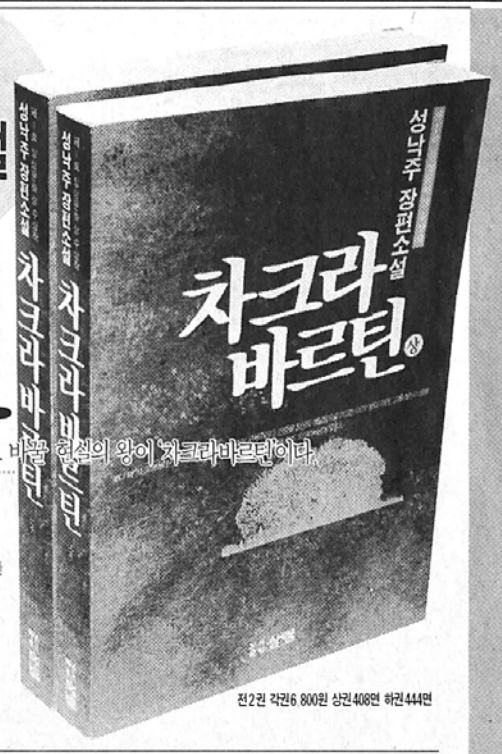
계간「상상」주관 제1회상상문학상 수상작

성낙주 장편소설

"붓다 시대를 다룬 세계 최초의 본격문학"

차크라바르틴

'붓다'와 '차크라바르틴'은 다 같이 민중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이다. 민중을 정신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가 '붓다'라면, 고통스런 이 땅을 낙원으로 바꿀 현실의 왕이 '차크라바르틴'이다.



"차크라바르틴」은 불교라는 종교가 막 태동하고 발생하는 시간적 · 공간적 지점으로 내려가 그 본질을 탐색하고 있다. 석가족의 성자 고타마 싯다르타와 석가족을 멸망시켜 천축을 통일하려는 비유리 왕의 갈등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면서 붓다(佛者)와 차크라바르틴(轉輪聖王)이라는 형이상학에 도전하는 진지한 주제와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오늘날 신화와 설화에 대한 우리 문화계의 새로운 관심은 세기말의 삶이 과편화 · 부분화 되었다는 반작용인 동시에 삶의 정체성과 전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적 새물결임을 반증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화와 설화가 작품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차크라바르틴」은 분명 눈여겨 보아야 할 뛰어난 소설임에 분명하다.

「상상문학상」 심사평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 나는 이 작품을 서른 번이나 세곤 썼다 참고한 서적만도 수백 권이 넘을 것이다. 이 소설 속에는 지난 내 생의 땀과 눈물이 녹아들어 있다

성낙주(수상작가)



치크라바르틴」은 나를 이야기의 숲속에 뻐뜨린 소설이다. 이토록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을 근래에 본 적이 없다. 이야기라면 지다거도 밸딱 일어나는 버릇의 나에게 이 소설이야말로 가장 반가운 선물이었다

양귀자(소설가)



「차크라바르틴」은 근래 보기 드문 대작이다. 우선 우리 정신의 근원인 동양정신을 복원해보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이야기, 서사의 힘은 독자를 정신없이 빠져들게 한다

이인화(소설가)

성낙주 장편소설 2권 차크라바르틴 하

전2권 각권6,800원 상권408면 하권444면

이문열 사색집
사색
평생에 걸쳐 단 한 번 만나게 될, 운명과도 같은 책!
값 5,000원

임철우 장편소설
그섬에 가고 싶다
질펀한 웃음과 투명한 눈물, 꿈과 안타까움이 전편에 걸쳐 스며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값 5,000원

양귀자 장편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100만 독자로부터는 공감을, 신화학자로부터는 여신상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은 문제적 텍스트!
값 5,500원

기형도 유고집
짧은 여행의 기록
짧게 살다간 시인의 일기, 편지, 소설, 기행문 등 내밀한 영혼의 붉꽃나무!
값 5,000원

유서로 장편소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국소수의 독자들이 읽었지만 그 독자들로부터는 극찬을 받은 보석같은 소설
값 5,000원

도서출판 살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86-9 인왕빌딩 304 · 305호
전화 379 4925, 4926 영업부 394 3451 3452 편집부
팩스 379 4724

100년 전 한국의 모든 것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지음 이인화 옮김
최보 33면 미색지 80×606면 값 12,000원
그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이 나와 접하게 됐다. 소설처럼 읽히는 재미뿐만 아니라 100년 전 우리의 생활상을 꼼꼼하게 적어나가는 작가의 관찰력에 감탄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박한서(소설가)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도 놀라운 것이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장례풍습과 여성의 생활, 광영의 기생, 무당의 굿과 귀신들의 계보 등 민중생활에 관한 생생하고 세심한 관찰이다 장정일(작가)
불과 100년 전의 시간, 풍물, 지명, 생활들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번역을 하는 3년여 동안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은 나의 무지를 통절하게 깨우쳐준 스승이었다 이인화(영원한 제국)의 작가)

신이현 장편소설
숨어있기 좋은 방
삶의 실비, 나이체적 질문으로 가득 찬 소설!
주인공 윤이금, 이 귀여운 처녀의 내면에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갖가지 거짓과 위선을 통찰한 끝에 도달한 나이체적 진실이 존재한다.
숨어있기 좋은 방」은 아주 사이즈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90년대 소설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선일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여인의 독백이 담긴 소설! 동아일보
이 소설은 우리를 은밀하면서도 두려운 세계로 유혹하고 있다
나는 우리 소설에서 보기 드문 반문리적 소설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에 찼다 진형준(문학평론가)
값 5,000원

불교용품 주고 받기 꼬마불자들에 확산

동자저금통등 60여종…어린이 불서·카드도 호응

5월 어린이 날을 앞두고 어린이불교용품을 친구들과 서로 주고받는 새 풍속도가 꼬마불자들 사이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전부터 선재마을, 견지불교, 진영사등에서 어린이불교용품이 활발히 제작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법안정사 불광사석왕사 조계사등의 어린이회 및 유치원에서 포교사업의 일환으로 펼친 '어린이 불교용품 주고받기' 교육프로그램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다.

친구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어린이불교용품은 총60여종이 넘는다.

꼬끼리연필, 연꽃통자, 연꽃오색주머니, 수첩통, 공양게송이 적힌 도시락통, 동자저금통등으로 크기가 작고 색깔이 다양하면서 아기자기한 모양의 불교용품이 대부분을 이룬다.

또 총 30종에 달하는 카드와 여자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10여종의 악세사리도 있다.

뿐만아니라 5~6종 1백여권에 이르는 어린이불교서적 또한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 날이 초파일과 근접하게 있어 불교용품을 주고받는 어린이들에게는 봉축의 의미도 함께 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 이런 새 풍속도가 꼬마불자들 사이에 폭넓게 정착돼, 단순히 선물주고 받는데에서 벗어나 불심과 법우들간에 우의와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자리잡아가야 한다는게 일선교사들의 의견이다.

조계사어린이회 허성희간사는 "어린이불교용품 주고받기는 아이들에게 불자라는 당당함과 자산감을 갖게 한다"며 "이런 풍속이 어린이날 일회성에 그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펼쳐지도록 일선 지도교사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어린이날 전후 청소년 불교 문화행사

날 짜	행 사 명	장소 및 시간	주관단체
4/21~5/7	· 아동극 공연 (1일3회)	목동 청소년회관	목동청소년회관
4/28	· 찬불합창제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오후7시	부산불교 합창단협의회
4/30	· 연꽃 노래잔치 · 불교웅변대회	동국대 중강당 오후1시 조계사 대웅전 오후2시	대불청 대한불교웅변인 협회총본부
5/5	· 봉화산 청소년축제 · 제1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 어린이 큰잔치 · 청소년 백일장	봉화산 청소년 수련원 오전10시 경기도 여주 목아불교박물관 오전10시 조계사 문화회관 오전10시 봉은사 오전10시	봉화산 청소년 축제위원회 월간 「불광」, 목아불교박물관 조계사 어린이회 봉은사
5/7	· 뮤지컬 '백설공주'	구룡사회관 오후2시	구룡사
5/13	· 청소년음악회	피리공원 오후7시	목동청소년회관
5/13~5/14	· 아동극 '단군할아버지'	동숭아트센타 동숭홀 오후3,5시 오전11시, 오후2시	월간 「동쪽나라」
5/14	·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 · 어린이 백일장	동국대 중강당 오후2시 목동 청소년회관 오전10시	청교련
5/21	· 연꽃백일장 및 사생대회	부산 법어사 탑전 오전10시~4시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연합회
5/26~5/28	· 서울인형제 (국제인형극제)	목동 청소년회관 오후2,4시	목동청소년회관

5월 청소년 문화행사 다채

올해 5월5일 어린이날은 부처님 오신날이 이틀뒤로 근접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가 어느해보다 풍성하다. 올해 어린이날 전후로 펼쳐지는 청소년문화행사는 사찰 단위의 백일장 및 사생대회, 연극, 노래경연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문화행사들은 불교계 문화포교의 장이 되는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꿈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어울마당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이 공동주최하는 '제1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는 전국 어린이 불자들의 부처님을 향한 서원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꿈나무 포교 새 장 열어"

은석국교 PC통신 이용 불교 공부

종립학교는 물론 일선 학교단위로는 최초로 PC통신을 이용, 법회자료를 교환하고 모임을 소개하는 학교가 생겼다.

서울 은석국민학교(교장 김병호)가 바로 그곳. 은석국민학교는 재학생 1천1백70명 전원이 PC통신망 〈천리안〉에 가입, 〈은석동우회〉란이 개설됐다.

은석동우회는 ▲연화어린이회 ▲연화어머니회 ▲불교신문등의 불교정보 교환란과 공지사항란, 학생들의 대화방 등 30여개로 구성돼 있다.

학교측은 PC통신을 이용, 재택(在宅)교육을 통한 학생·학부모와의 대화뿐 아니라 불교모임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교환을 통한 신속하고 폭넓은 포교사업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4~6학년생에게는 컴퓨터 시간을 통해 사용법을 가르치고 1~3학년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특별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은석국교 PC통신 운영담당 한왕현교사는 "PC통신 교육으로 학생들을 방과후에도 지도할 수 있을뿐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보다 자유스럽고 다양한 불교소식을 접할 수 있어 꿈나무들에게 포교사업의 새 장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하는 사찰여행 안내

단 체 명	여 행 지	전 화
두 레	문경 봉암사와 문경세재 등	(02)712-5812
불교신행연구원	팔공산 갓바위, 거조암 등	(02)587-6613
응신항공여행사	서산 간월암, 낙산 홍련암등	(02)279-1191
터 사 랑	강진 백련사, 장흥 보림사	(02)725-1284
한국일보명찰순례	합천 해인사, 관촉사	(02)724-2615~6
부산불교교육원	쌍계사	(051)466-4080
부산불교산악회	쌍계사	(051)464-2020
광주불교교육원	호남지역 사찰	(062)228-9098
신 라 문 화 원	경주박물관, 안압지, 첨성대등	(0561)771-1950

"가족끼리 사찰순례 떠나요"

불교단체들 불심가꾸기 여행프로 마련

국토순례모임 터사랑의 회원인 송수진보살(서울 홍파국교 교사)은 지난해 부터 대학생인 딸 재은양 아들 재훈군과 사찰순례기행을 함께하며 돈독한 불심과 가족애를 가꿔오고 있다.

"여러번 찾았던 절인데도 아들 딸과 함께 가보면 새로운 인상과 느낌을 갖게 돼요"라고 송보살은 말한다.

"오가는 버스안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 새벽예불도 하면서 불자로서 마음의 교감을 나눕니다"라는 송보살은 그래서 항상 다른 가족들에게도 여행을 권한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조차 어려운 것이 요즘 가정의 현실이다.

유서깊은 산사와 문화유적지를 찾아가는 가족여행을 통해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심으로 하나되는 불자가정을 가꾸는 것도 바람직한 불교신행의 한 방법이라고 불자들은 말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 불교신행단체와 여행사에서도 불심가꾸는 사찰·문화기행을 준비하고 불자들을 기다린다.

터사랑은 오는 5월 13~14일 전남 강진 백련사와 장흥 보림사로 1박2일간의 순례일정에 오를 예정이며, 부산불교교육원도 경남 하동 쌍계사로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용진항공여행사도 오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이 함께 가는 서산 간월암 관음 도량참배를 떠날 예정이고, 두레는 부처님오신날 특별기행으로 문경 봉암사와 문경세재를 오는 5월 6~7일 방문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불교신행연구원, 신라문화원 등에서 사찰순례·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5월 사찰문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어리석음의 장 *
업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이 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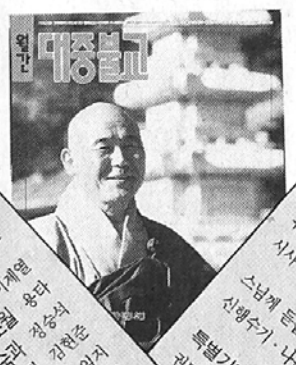
불교 정론지

월간 대중불교 5월호

(재)대원정사 월간 대중불교 / 값 3,500원

부처님 오신 달 5월에

부처님 말씀 그대로 〈대중불교〉를 만난다



지령 150호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누가 송광사 성보를 훔쳐 갔나
16국사 진영의 가치 / 김형우
현경취계, 송광사 성보는 부처님 오신 날 전에 돌아와야 한다 / 공동 취재
대책 없는 말들은 마땅히 성보 지킴이로 나서야 한다 / 공동 취재
대중불교의 벗을 찾아서
충남 대학교 교수 불자회 '대원회' 김회군
생활불교 · 미주첨과 조절 용다
교리산책 · 이숙업과 이숙과 성승석
법당 이야기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김현준
에세이 보살불교 · 정취보살 · 일심의 해탈 초월行 일지
수행길의 이런 도반 · 구수한 진국의 사람 토진 스님 표백
인기연재/수행으로 가는 길 · 무당의 염불과 수행인의 염불 이계열
교리산책 · 이숙업과 이숙과 성승석
법당 이야기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김현준
에세이 보살불교 · 정취보살 · 일심의 해탈 초월行 일지
수행길의 이런 도반 · 구수한 진국의 사람 토진 스님 표백
지장신앙 · 나는 '남 켄' 그곳으로 간다 / 항산월
특별기고 / 중국땅 지장왕은 신라 스님이었다 유봉규
권말부록 · 불교방송 교리강좌 이평래
4회연속특별기획3
지방자치 이후, 이렇게 달라진다 / 김병준
쇠북소리 · 열린 사람을 낳는 종고 / 김종철
귀담아 듣고 · 불자와 쇠사랑을 낳는 종고 / 배기성
시사 ·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정고한다 / 유정길
포교당 일기 · 벼랑 위의 사람들 원우
예사저를 찾아서 · 안성 봉업사지
김상영, 최태신
불교와 민속 · 통일신라 이래의 전통
연등회 김종대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514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으로 방아를 찧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 – 현미저분도쌀

1. 현미의 문제점 :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섭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2. 왜냐하면 상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운점을 악용하여 묵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라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으로)+미강가루(없음)=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더쉽다.)
5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조금 더쉽다.)
6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아주 더쉽다.)

5. 변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른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6.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7.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8. 원하는 분도별 쌀 kg단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2, 235-1846~7
正米食(쌀을 바르게 먹음)이면 米壽宴(여든여덟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이다.

성철 큰스님께서 평생 말씀하신
오롯한 진리의 결정체!

영원한 자유의 길



• 4×6판 • 184면 • 2,000원
• 도서출판 장경각 발행

법공양으로 특히 좋습니다

첫째 / 소지가 간편하여 읽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 부담없는 가격으로 선물하기에 좋습니다.
셋째 / 읽고나면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어집니다.

문의 / 해인사 백련암 (0599) 32-7300, 서울사무실 (02) 277-2676
대원사(총판) (02) 323-5511~3

※ 다량 구입하시는 분께는 특별할인하여 드립니다

화제의 책

욕망론

허우성 외 지음



'욕망'이란 말은 종교와 철학에서 빈번하게 쓰이면서도 그 개념이 일관성있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욕망론〉은 불교철학과 노장철학 기독교철학의 전공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욕망론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각 종교별로 욕망이란 말의 새로운 개념정리를 바탕으로 △욕망의 실상들을

종교별로 욕망에 대한 개념 정리

나열하고 △모든 욕망이 생겨나는 근원적인 기원의 파악 △모든 욕망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 긍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각 종교철학에서 정의하는 욕망론을 한데 모아 욕망론의 비교연구서로 주목된다.

'불교의 욕망론'에서 허우성교수(경희대·철학)는 욕망의 변증법적 운동을 초기불교의 아함경전과 대승불교의 유마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경서원, 9천원〉

불교와 제과학 접목서적 '관심'

'현대사회와 불교' '불교경제학' 등 10여종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교와 사회과학의 관계 규명과 불교가 추구하는 정치 경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모색하는 책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80년대 민중불교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운동의 경전적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책들의 출판이 활발했다. 〈현대사회와 불교〉(이재창 외, 한길사) 〈현대한국불교론〉(지양사) 〈현대불교론〉(석도수 편, 지양사) 〈불타의 새얼굴〉(제럴드 섹터, 한진출판사)등을 꼽을 수 있다.



통일·환경·핵문제 해답 구체적 제시해야

특히 〈현대사회와 불교〉는 '불타의 가르침' '불교의 사회경제관' '불교의 사회사상' '불교의 종교의식과 역사의식' 등의 논문을 실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그리고 이 시대에 불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다.

불교와 정치와의 관계를 다룬 책으로는 〈불교의 정치철학〉(정승석 역, 대원정사) 〈불교정치사회학〉(나카무라 하지메, 불교시대사)등이 있다.

〈불교의 정치철학〉의 저자인 피야세나 딧사나야케는 불교정치 이론의 긍극적 목표는 비이기적 사회의 창조라고 밝히고, 우리의 사회의식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5계의 가르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교정치사회학〉은 고대불교사상의 정치·사회윤리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어 이 분야 연구의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불교와 사회과학 관계 밝힌 책

불교의 정치철학	피야세나 딧사나야케	대원정사
불교정치사회학	나카무라 하지메	불교시대사
불교경제학	E. F. 슈마허	대원정사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이재창	불교시대사
불교사회학원론1	진열	운주사
불교사회복지학	오노 신조	불교시대사
현대사회와 불교	이재창 외	한길사
상좌불교의 가르침	붓다다사	불교시대사
물러섬과 나아감	법성	한길사

〈불교경제학〉(E.F.슈마허, 대원정사)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이재창, 불교시대사) 〈불교사회학원론1〉(진열, 운주사) 〈불교사회복지학〉(오노 신조, 불교시대사)은 불교적 관점의 사회·경제원리와 윤리를 다루고 있다.

〈불교경제학〉에서는 불교의 중도(中道)를 경제원리를 제시, 조화와 합목적성의 추구를 내세워 서구경제학 이론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에서는 불교경제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소욕(少欲)의 소유관념 △사방승가(四方僧伽)의 공유원칙을 통한 경제적인 복지사회의 건설임을 밝혔다. 〈불교사회학원론1〉은 불교가 사회적으로 취하는 시각과 인간구제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와는 달리 불교운동의 불교사상적 철학적 기초를 모색하고 있는 책으로 〈물러섬과 나아감〉(법성, 한길사) 〈상좌불교의 가르침〉(붓다다사, 불교시대사)등이 관심을 모은다.

한편 불교와 사회과학과의 관계를 다룬 책들은 번역물이 대부분으로 국내불교학의 응용분야에 대한 저술 출판이 더욱 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환경 교통 통일 핵문제에 대한 불교적 답변을 모색하는 한편 불교시민운동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출판도 요구되고 있다.

〈정성운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지눌스님의 '수심결'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수심결(修心訣)〉. 5천여자의 그리 길지 않은 이 책은 내 학문의 방향을 결정지웠고 줄곧 삶의 밝은 등불이 되어오고 있다.

내가 결정적으로 이 저술과 만난 것은 1970년대 초이다. 그때 나의 유학생활은 아주 힘들 것이었다. 육체적으로 노동에 가까운 일을 해야 했고 학문적으로도 자리가 잡히지 못했었다.

나의 관심은 궁극적인 종교체험에 쏠려 있었고 그래서 신비사상에 심취(?)되어 있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의 체험, 말이 끊어진 세계, 그리고 밝음과 어둠이 동시인 이른바 신비 파라독스 등을 본령으로 하는 신비사상은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내가 〈수심결〉을 다시 읽은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신비사상의 거의 모든 것을 〈수심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내용이 '하나'의 깊은 체험의 샘에서 흘러나와 체



강 건 기
〈전북대 교수·철학과〉

깨우침·닦음의 길 적극 제시
마음 공부 체험 통해 일러줘

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가. 궁극적인 종교체험을 다루고 있는 세계의 어떤 저술에 비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그 확신에 변함이 없다. 그러고 보면 지눌사상에 대한 공부와 불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는 〈수심결〉을 통해 정착이 된 셈이다.

무엇이 〈수심결〉을 우리의 영원한 스승에게 하는가?

첫째, 저자인 보조국사 지눌의 진지한 삶의 자세요, 마르지 않는 깨침의 샘물을 직접 마신 체험이다. 스스로를 '소치는 사람'(牧牛子)이라 호(號)했듯이 그는 평생을 옷깃하나 흐트리지 않는 정진으로 일관한 수심인(修心人)이었다. 그러나 결코 그는 현실과 중생을 외면하지 않았다. 정법으로부터 멀어진 고려불교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혜결사의 횃불을 높히 들었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였다. 〈수심결〉에는 그런 지눌스님의 체취가 담겨있다.

둘째, 깨침과 닦음에 대한 명쾌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특정인만을 위한 외곬의 길이 아니라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너른 방편문이다. 흔히 일컬어지는 돈오점수 뿐만이 아니라 돈오돈수의 길 또한 포용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로 〈수심결〉이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모든 수심인의 나침판이다.

일찍이, 중국이나 일본의 〈대장경〉속에 소개된 일이나 근래의 명저 〈선학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Zen)에서 저자인 대만의 석학 오경웅(吳經熊)이 지눌의 이 저술을 통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수심결〉이야말로 선학의 강요서이다.

끝으로, 〈수심결〉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삼계를 윤회하는 중생의 고통은 불난집보다 더한 법이다. 그런 고통을 어찌 참아 그대로 머물러 받으려 하는가.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엔 없다. 부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려 하는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수심결〉은 자기상실의 깊은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자기회복의 원음이다.

출판 단신

구정가 판매 실시

책방여시아문, 5월말까지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5월말까지 구정가판매를 실시한다. 구정가판매는 일부 불서에 한정하며 발행당시의 정가 또는 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민족사 불광출판부 우리출판사 여래 관음 정신세계사 등 10여개 출판사가 구정가 판매에 참여한다.

'부처님…' 만화집 보급

불광출판부, 이정문씨 그림

불광출판부에서는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오신 뜻〉이라는 소책자 만화집을 제작, 보급한다. 만화가 이정문씨가 그린 이 책은 부처님 일대기와 함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현대적 의미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어 신도 교육과 어린이법회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사찰에서 다량구매할 경우 해당 사찰명과 법회안내를 별도로 인쇄해 준다. 문의:420-3200

새로나온 책



▲백문백답=부산 금모서원 조실 진제선사의 선문답집. 수선회와 금모선원 정진대중과의 문답을 통해 선사의 깨달음의 안목과 선수행의 올바른 방도 그리고 선사의 출가와 인가과정, 돈오돈수 사상의 진면목을 밝혔다.

〈파란나라, 3천원〉

▲청소년법회 길잡이(고우익·현익채 엮음)=청소년법회 현장에 필요한 예불문과 축원문 그리고 불교의 일반상식과 입문교리를 한데 모았다. 특히 각종 기념일 국경일 법회도 봉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불심총법원, 4천5백원〉

▲현자는 더이상 침묵하지 않는다(김일하 지음)=구도정진과 창작활동에 전념해온 저자의 첫 장편소설. 세인과의 관계를 끊고 은거하던 도인들이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인류의 위기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지극히 합리적인 자아반성의 수행법을 소설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다. 〈관음출판사, 6천원〉

▲사람의 향기(정운 지음)=충남보령 세원사에 거주하며 포교와 시작(詩作)에 몰두하고 있는 정운스님의 수필집. '내가사는 이곳은' '어떤 인연이야기' 등 60여편의 글을 통해 생활의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불광출판부, 5천5백원〉

▲부처님 미안해요(김남희 지음)=4년여 동안 전국의 사찰을 여행하며 그곳에서 받았던 느낌들을 모은 짧은 글모음집. 일부는 월간〈해인〉에 '달마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연재되기도 했다. 불교와 인연을 맺은 고마움과 신행생활 가운데 커가는 환희심을 잔잔한 문제로 표현했다.〈해와 달, 3천8백원〉

▲나의 부처님공부(김정아 지음)=〈문학과 비평〉으로 등단한 저자가 불교방송의 구성작가로 활동하며 '살며 생각하며'에 방송된 원고를 책으로 엮었다. '경전 한 말씀' '동화속의 부처님'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했다.

〈문학아카데미, 5천5백원〉

▲한국증교 이야기(최준식 지음)=불교 유교 도교와 무속등 한국인의 사회윤리와 가치관 종교문화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종교들에 대한 입문서. 각 종교의 기본교리와 역사, 전개과정, 현대와의 관계 등을 쉽게 서술해 한국인의 심성을 밝히는 정신문화의 답사기로도 읽힌다.

〈한울,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	고 익 진	동대출판부
2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3	마음의 향기	석 성 우	토 방
4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5	차크라바르틴	성 낙 주	살 림
6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최 순 우	학 고 재
7	지관의 이론과 실천	남악혜사	삼 양
8	술몽쇄언	김 대 현	을유문화사
9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 익 진	새 터
10	젊은 불자들을 위한 수행론	법 륜	중앙불교교육원

구입문의:(02)737-0695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드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26.5×36㎝)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올컬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낱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중요내용

①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싣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② 佛教繪畵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③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④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⑤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⑥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⑦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02)737-0695
FAX:(02)737-0696

공급처
(주)한국색채문화사
TEL:(02) 333-0051
FAX:(02) 338-7781

불교미술

전통과 시대성 '집중조명'

동국불교미술인회 세미나 모방·적당주의 반성계기

불교미술의 교리적 정의와 현대화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한 '불교미술, 그 전통과 현대성' 세미나가 25일 오후2시부터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동국불교미술인회와 불교신문사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현대화, 신인등용등 불교 미술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까지 심도 깊게 다루어 주목을 끌었다.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로 첫 발표에 나선 강우방씨(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는 "근대화를 철저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화의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고 한국불교미술의 시대적 흐름을 진단했다. 강씨는 이날 발표에서 삼국시대전부터의 역사적 배경을 지역 양식과 개인양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작행위 즉 통일신라 고전양식이나 조선시대의 퇴화된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획일적인 불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강씨는 개인양식이 얼마든지 가능한 현대에 회화 보다는 조각분야가 개인양식의 시도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안하고 자비스러운 것이 한국불상의 특징"이라고 분석하며 지역적 시대적인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불교미술의 교리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목정배(동국대)교수는 △모사나 모조 보다는 깨달음의 원초적 모습을 창의해야 한다. △문헌적 연구를 바탕으로 교리, 사상에 합당한 조상조형의 창출 △원시불교의 수행상, 대승불교의 구제상이 뚜렷한 작품의 창조등이 균형있게 작품화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무형문화재 48호이자 현대를 대표하는 불모(佛母) 석정스님은 이날 '불교미술의 시대적 조명과 전통의 맥'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불교미술은 지극한 신심과 꾸준한 정신을 통해 점진적으로 열어가는 수행의 과정"이라며 개인적 창의력과 경전 사상에 부합한 작품의 창조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를 들고 나온 최완수씨(간송미술관연구실장)는 "단절된 전통의 계맥을 복원적으로 이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며 불교미술계의 적당주의와 상업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간 꾸준한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던 불교미술전람회(조계종이 격년제로 시행)와 관련한 신인의 등용 문제는 홍윤식(동국대 박물관장)교수에 의해 거론 됐다. 홍교수는 이날 '불교미술인의 등용과 불미전'을 통해 불미전의 긍정적 기능과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교수는 "불미전은 등용문이란 외형적 성공은 이루고 있지만 학문적 발전에 대해서는 다른 여운이 남는다"며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국대학교에 불교미술학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불교미술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들춰내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불교미술계의 노력이 충분히 보여 졌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주제의 복합성이 갖는 세미나의 한계도 지적됐다. 불교미술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내용적인 고민'의 장을 계속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권정학, 김영재, 김익흥, 조정우, 보광스님, 한상주씨등이 종합 토론을 벌였다. 〈임연태 기자〉

수안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

소년소녀가장돕기…내달 2일까지 운현궁미술관



◇경봉스님이 남긴 단 한점의 10폭 병풍 '심우송'

근대고승 경봉스님의 작품중 단 한점만 남긴 「심우송」과 「반야심경」 여초, 긍농, 월전선생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마음선원 율산지원(지원장 혜안)이 개최하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 및 불사를 위한 수안스님초청 한마음 특별전'이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운현궁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서는 수묵화, 채색화를 비롯 금·은분을 사용해 그린 수안스님의 작품과 함께 경봉스님의 유작등 개인소장가들이 내놓은 근현대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소개된다.

'나의 그림은 기도'라며 그림과 수행을 동일선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수안 스님의 작품들은 선과 동심세계의 해맑은 정서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찬조 작품으로 소개되는 대가들의 작품중 특히 눈길을 끌 경봉스님의 「심우송」은 경봉스님이 단 한점만 남긴 10폭 병풍으로 세간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것.

'화엄정토변상도' 어떤 작품인가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이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된 「화엄정토변상도」는 비단바탕에 폭 58.5Cm, 높이 1백31.1Cm 크기의 13세기 중반작품이다. 2개월간 이 불화의 관독에 매다렸던 홍윤식 교수는 이 불화는 아래쪽에 아미타여래 3상, 석가여래 비로자나불 등의 5여래상이 늘어서 있으며 중간에는 경전을 짊어지고 각기 다른 지물(持物)을 손에 든 일곱비구가 그려져 있다. 또 위쪽에는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하강하는 40여래상이 배치돼 있다. 이 불화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52여래와 경전을 짊어진 비구상. 이같은 도상은 이제까지 발견된 고려불화에서는 한번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 알려진 고려불화는 1백여점이다. 이들의 도상은 대개 아미타불만 그려져 있거나 협시보살의 등장, 정토경관련 변상도, 관음이나 지장보살도 등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화엄정토 변상도'는 고려불화 양식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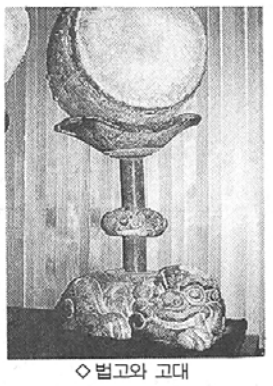
홍윤식교수는 "신라이후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이 결합된 예를 보여주는 사찰로 부석사가 대표적이라면 의상, 원효, 지눌등은 이 두 사상을 융합해 수용한 대표적 고승"이라며 "이번에 화엄정토변상도가 발견됨으로 회화의 영역에서 표현된 두 사상의 결합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엄정토변상도」는 오는 7월 중앙일보사와 호암미술관이 공동개최하는 '대고려전'에 출품돼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화엄·정토 결합한 획기적 자료

52여래와 경전 짊어진 비구 "새로운 형식"

"주제와 양식이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특이한 불화일뿐 아니라 고려중기 불교의 화엄정토 사상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그린 불화"라며 이 불화는 불화연구의 새 장을 열 수 있는 획기적 작품이라고 평했다. 「화엄정토변상도」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양미술 컨설턴트인 독일인 클라우스 나우만이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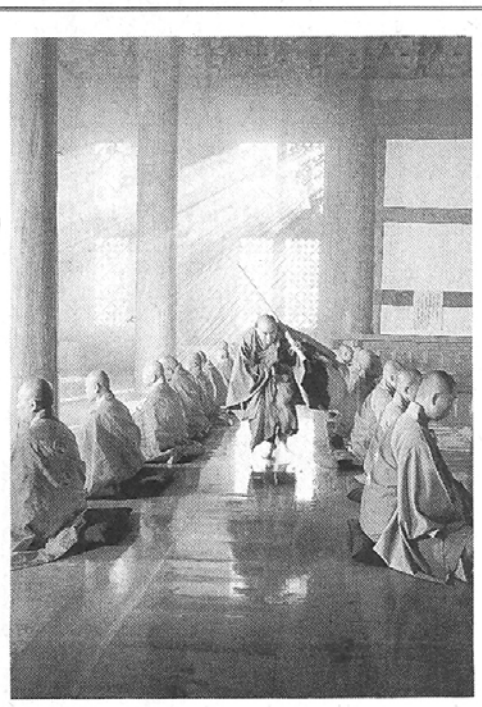
◇법고와 고대

불교민속용구 '한자리에'

절에서 사용하는 의식용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5월15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동국대 박물관과 통도사, 국립민속박물관이 주최하는 「장엄의 미, 불교민속의식구전」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집기와 의식용구를 통해 불교신행의 과정과 의미를 새겨보는 전시회다. 흔히 절에서 볼수 있는 용구들에서 특별의식에만 사용되는 집기등이 선보이는 이 전시회는 불교의 민속화에 대한 이해도 돕게 된다. 전시품은 시련의식용구(영산재에 사용되는 용구들), 법회 의식용구(의식, 공양, 장엄에 쓰이는 용구들) 수행의식용구(가사, 계첩, 발우등)들.

의식용구의 전시 기간중에는 학술강연과 의식재현도 함께 펼쳐진다. 강연은 5월3일 오전10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며 홍윤식, 정명호, 하전정, 김형우, 장경희씨가 강사로 나선다. 또 같은날 오후3시에 민속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영산재보존회가 영산재의식을 시현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사진전 우수작 '참선'

28일~5월10일 문예진흥원서 전시

봉원사 선알스님(한국불교신문사 사진부장)이 출품한 「참선」이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제14회 대한민국사진전람회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우수상 수상작 「참선」외에도 특선작 공력화씨의 「무심」, 입선작 김익증씨의 「성도」, 박노택씨의 「초파일」「경」, 이수연씨의 「사천왕」이 출품, 각각 입상했다.

입상작 전시회는 오는 28일부터 5월10일까지 서울 동숭동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린다. 또 5월20일부터 7월29일까지 인천·울산·대구·광주·제주·대전에서도 순회전시된다.

시와 음악 함께하는 봉축

현대불교문학회 시낭송회

불교문학포교원 현대불교문학회(회장 수완)가 개최한 부처님오신날 시낭송회가 지난 22일 오후5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낭송회에서는 오현스님, 정휴스님, 성우스님, 청화스님등 중진 승려시인과 현대불교문학회 회원들의 시가 발표됐다.

또 이날 시낭송회에서는 정석봉씨의 대금연주와 심진스님의 축하 노래공양도 함께 펼쳐져 시심과 음악으로 봉축의 자리를 만들었다.



◇김수영 作 '보덕암'

금강산절경 화폭에

김수영씨 5번째 개인전

30여년동안 금강산만을 그려온 서양화가 김수영씨의 다섯번째 개인전이 지난 22일부터 4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의 주제는 「금강산, 그 찬란한 보석」. 금강산 1만2천봉의 전체모습을 담은 4m짜리 거대 화면의 '금강산전도' '표훈사' '명경대'등 관화 6점을 포함,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관동별곡이나 조선시대 명시(名詩)에서 익히 들었던 절경들을 담은 작품들이 선보였다.

찬불가 발표회 개최

5월7일, 총지종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안효강)은 부처님 오신날 기념 찬불가 발표회를 5월7일 총지사 법당에서 개최한다.

'찬불가를 통한 포교의 활성화'라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총지사 가족법회 회원을 중심으로 각 사원의 교도들이 각종 찬불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덴마크 禪화가 만날기회

다음달 2일까지 '서울-코펜하겐전' 열려



◇박찬갑



◇토르벤헤론



◇오킴로덴버그



◇엔스크로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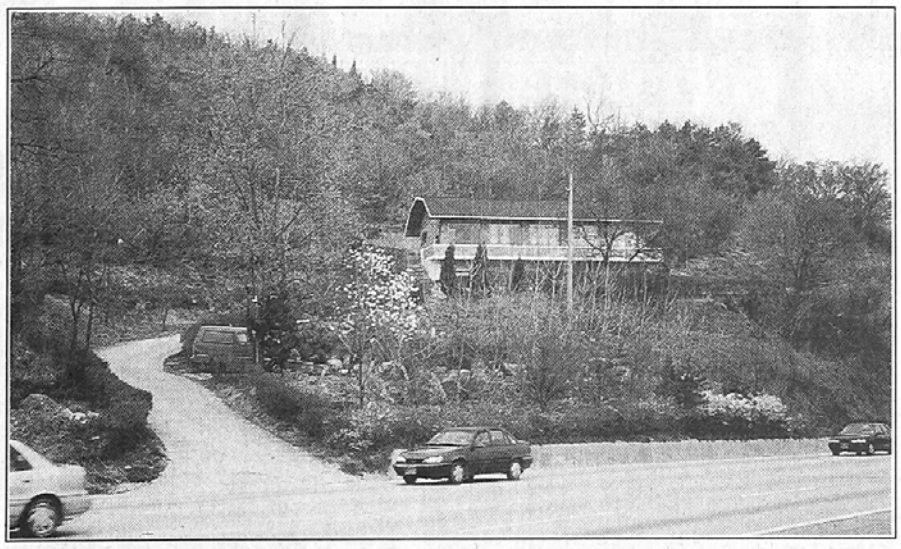
불교의 禪 사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덴마크의 화가 3명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조각가 박찬갑씨가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서울-코펜하겐」 전시회가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현궁미술관(766-7967)과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중앙일보 문화센터 운현궁 갤러리(744-4412)에서 잇따라 열린다.

「하늘새」를 주제로 한 박찬갑씨의 조각 작품과 함께 회화작품을 선보일 덴마크의 작가는 토르벤 헤론, 오킴 로덴버그, 엔스 크로반등. 이들의 작품은 각자의 서정성과 탐미적 성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작품들을 내놓지만 선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표현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화 작품을 내놓은 세명의 작가는 현재 덴마크에서 중진급으로 대우 받고 있으며 전시와 관련 우리나라를 방문 15일이상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불교미술품들을 집중 관찰,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박찬갑씨는 "한국과 덴마크의 문화 교류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획된 이 전시회는 불교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덴마크에 한국의 불교미술이 진출하는데 이번 전시회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 좋고 경관 좋은 곳에 사찰 하실 분



워커힐 호텔에서 구리시 쪽으로 500m (4차선도로변)
남향에 시야가 탁트인 한강이 한눈에 들어옴(미사리, 강동, 송파, 잠실 롯데월드까지)
암반생수·교통편리
임야:600평 대지:60평 건평:60평
매가:5억 5천만원, 전세 1억 5천만원

연락처 : (02) 452-2644 김인화(주인직접매)

불교에 대한 관성적 관념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판신서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저,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6번지 ☎(02)720-9372·3 Fax(02)723-0646

地藏菩薩
중국구화산 신라승 肉身佛
지장보살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

중국 구화산 지장성지 현지 촬영 완성!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이었습니다.
천이백년 동안 단 한번도 꺼지지 않은
김지장육신보전의 향불! 석가모니불로부터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 구제를
위해 삼생을 나투시는 무불시대의 메시아!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을 아십니까?

제1부 :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
제2부 : 꺼지지 않는 김지장 깃발

비디오 구입문의 : 02-233-2830
우편판매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외환은행 : 139-13-05983-7 김행수
우 체 국 : 011213-0068986 김행수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두운스님 창건한 용문사

한국의 명찰(24일 11:10~12:00)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는 지장도량 사찰로 870년에 두운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장수마을 혼자계곡 탐방

실크로드(25일 12:30~13:20) 세계의 지붕인 파미르 고원을 넘어 파키스탄에 들어간다. 살구꽃과 장수하는 마을로 유명한 혼자계곡을 방문하고 불교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간다라 평원으로 향한다.

늦깍이 가수 김국환 출연

김병조의스타쇼(26일 11:10~12:00) 욕심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는 늦깍이 가수 김국환씨. 녹내장으로 아들의 TV 출연도 못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끝내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저 진실되게 사는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김국환씨의 삶을 엿본다.

청소년 복지·포교문제

TV신행상담(27일 11:10~12:00) 변화를 좇아 끝없이 달리는 오늘의 청소년! 불교는 그들에게 어떤 안내자가 되어야 할까? 희망찬 내일의 불교를 기대하며 청소년의 복지, 포교문제를 짚어본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숫자로 풀어보는 불교

퀴즈대장경(24일 15:05~15:55) 해인사 대장경판의 수, 위경의 수, 아함에 나오는 경의 수, 결집의 횟수, 부처님의 전기 수는? 생방송 퀴즈대장경은 '숫자로 보는 불교'를 주제로 퀴즈대결을 펼친다.

전남대 연기영교수 강연

오는을 이끄는 불교(25일 11:05~11:20) '불교와 의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남대 의과대학 해부학과 연기영 교수의 강연이 일주일간 펼쳐진다.

손연칠교수의 신행생활

피안을 향하여(28일 14:10~14:45) 손연칠 교수의 미술세계와 신행생활을 들어본다.

안용호씨의 예술세계

다큐멘터리 한국의 장인들(30일 14:00~14:45) 단청장인 안용호씨의 예술세계를 찾아가 본다.

BBS 개국 5년…신행길잡이 '평가'

지방국개설 '큰 성과'…전문성 확보 '숙제'

'거룩한 만남' '자비의 전화' 등 포교 한몫

"불교방송의 자비의 전화는 저의 교과서입니다."

"불교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기복신앙에 젖어 있었음을 알게 됐고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1일은 불교방송의 다섯번째 생일날. 그동안 불교방송을 들은 불자들의 평은 '신행의 길잡이'로서의 역할로 모아지고 있다. 또 일부 타종교의 성직자들도 "불교방송을 통해 불교를 배운다"고 말하고 있다.

개국 초기부터 불교방송의 프로그램들을 모니터해 온 김재일씨(보리방송모니터회 회장)는 "불교방송이 불자들에게 신행의 거침 역할을 하며 매체포교의 신기원을 이뤄 온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씨는 "타방송과 비교해 불교방송의 노하우가 집적된 획기적인 기획물이나 특집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경영상의 문제도 지나치게 닫혀 있었던 관계로 최근의 사태로까지 비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다 열린방송으로의 구조와 인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소설가 김충호씨는 "서울이란 가청권의 한계가 지방국 개국으로 극복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전문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라며 "그러나 그간 '거룩한 만남'이나 '자비의 전화'등의 프로등은 불교방송만의 기능 수행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같이 다양한 평가 속에 불교방송이 개국 5주년을 맞아 '거듭나는 방송'을 다짐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지난 23일 오후2시 용인자연농원에서 '창사 5주년 축하공연'을 가졌다. 또 창사 5주년에 맞춰 '세계불교문화전' '한국대장경 전산화' '음악공양의 밤' '산, 바다, 가람의 하모니 대공연' '인도무용극 공연' 등 대형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개화1백주년 해방 50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개화승 이동인' '연속대담 해방세대는 말한다' '한국속의 일본, 일본속의 한국'등 특집 프로그램도 제작한다. 또한 각 지방국과 공동으로 24시간의 3원 생방송과 남상, 해운대, 무등산을 연결하는 라디엔터링도 기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캠페인과 학술조사단의 탐사, 문화재관련 보도특집, 세계화관련 대토론회 등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불교방송이 '포교와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개국 5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거룩한 만남' 2백회 기념행사 사진.

해외통신

남북불자 합동 백일재 봉행

고베지진 희생 동포위해

제일본한민족불교도연합회(회장 태연스님)가 재일본조선불교도협회와 합동으로 고베지진으로 희생된 우리 동포 영가의 백일재를 지난 25일 봉행했다.

일본내 남북 불교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는 점에서 통일의 염원과 화해 민간교류의 장을 새로이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한 이날 백일재는 兵庫현 교육회관에서 개회선언, 삭귀의계, 묵념, 반야심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일본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단체는 특히 이날 행사에서 민족화합, 남북민간교류를 통해 통일 분위기 조성 등을 함께 펼쳐나가자는 내용의 서약문도 발표했다.

출정범종 귀향 축하법요식

정토진종 정토사

3월26일 히로시마의 정토진종 본원사파 정토사(아사에다 주지스님)에서 출정 범종의 귀향 축하법요가 열렸다. 정토사에 있는 이 범종은 소화17년(1942년) 주지스님이 당시 8세일 때 공출당해 나고 야시의 병기공장으로 옮겨졌으나 이용되지 못하고 곧 패전을 맞이하였다. 그후 진종대곡파의 삼륜사에 안치되었다가 53년만에 귀향하게 된 것이다.

이 범종은 1705년 주조된 것으로 구경 60센치에 높이 109센치, 무게 180킬로그램으로 약2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당내에 안치되었다.

아시에다 주지스님은 이날 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쟁당시 탄환을 만들기 위해 공출된 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3백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병기공장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금이 생기기는 했지만 축하의 의미로 흥백의 띠를 두루고 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의 참상을 겪어 온 전화의 증인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전쟁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새롭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토사는 이 범종을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이라는 새이름으로 부르기로 했다.

'혼란' 속 부처님맞이 행사 다채

日, 곳곳서 봉축 성황

지난 1월의 고베남부지진과 지하철 독가스 사건등으로 전국이 혼란하고 급격한 엔고로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인 '하나마쯔리'가 일본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효도(孝道)교구에서는 인도, 터키, 중국, 미국, 네덜란드 대사등이 참가,신도, 지역주민들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봉축행사가 열렸다. 4월 1일 부터 10일까지 계속된 이번 행사에서는 시내가장행렬을 거행하는 대신에 지진 피해지역에 원조금을 보내기로 했으며, 경내에는 신도들이 직접 만든 꽃무대로 그 열기를 더했다.

상점가로 번화한 길상사(吉祥寺)에서는 부처님을 업은 하얀 코끼리의 가장행렬이 승려, 어린이, 일반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졌다. 이 날 행사에서는 품비니합창단이 봉축가를 부르고, 헌차(불상에 감차를 뿌리는 일)등의 행사도 어린이들에 의해 행해졌다.

BBS 봄철 프로그램 개편

불교방송은 전국방송원년과 창사5주년을 맞아 정보와 특화성강화를 핵심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5월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편은 세계와 역사속의 한국불교역할을 제고하는 주중특화 프로그램과 라디오의 정보성, 깨달음의 사회화를 구현하는 포교프로그램의 강화가 두드러진특징이다.

주중특화 프로는 지금까지의 소재변화만으로 청취자의 관심을 반영해온것과는 달리 매일 2시10분~3시까지 일주일동안을 일일 단독프로그램으로 편성한다.

이시간대 신설 프로는 세계와 역사속의 한국불교의 역할 제고를 모색하는 '세계의 불교는 지금'과 불교환경단체를 탐방하는 '환경패트롤/작은것이 아름답습니다' 한국불교 1천6백년사를 드라마로 들려주는 '바로보는 불교역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진솔하게 다큐멘타리로 구성하는 '생방송! 도반을 찾습니다'가 신설된다.

이밖에도 '참선이야기(05:45~06:00) '언제나푸른불교'(금14:00~15:00) '생방송BBS정보시대(18:00~20:00) '밤의 창가에서'(24:20~ 01:00) '일요초대석'(일 14:00~15:00) '우리들의 찬불가'(15:05~15:45) '불교설화'(16:05~16:40)등 11개 프로가 새롭게 선보인다.

이로서 불교방송 개편 편성비율은 보도가 종전 11.8%에서 11.9%로 5분, 포교가 59.5%에서 60.0%로 50분, 교양이 12.0%에서 12.3%로 25분 늘어났고 오락프로는 종전 16.7%에서 15.8%로 80분 줄어들게 됐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매일 오후2시10분부터 30분간 방송돼 4백40여 불자들의 신행이야기를 들려준 '피안을 향하여'와 '열린아침 열린정보' '물같이 바람같이' 등 12개 프로는 폐지됐다. 〈김원우 기자〉

매체포교 사명 주력 '눈길'

'불교설화' 등 11개 신설

'피안을…' 등 12개 폐지

"정보시대 종단위상 강화"

총지종 춘기 강공회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안효강)은 지난18일부터21일까지 제45회 춘기강공회를 전국 각 사원스승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에서 성황리에 거행됐다.

종령 록정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종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종도들의 대화합이 선행돼야 한다"며 "육화경의 여섯가지 화합심법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따른 제생의세(濟生醫世)의 방편을 개발한다'는 주제하에 열린 이번 춘기강공은 특강, 경강공등 교육불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원의회, 재단이사회, 중앙종의회, 승단총회는 "이번 강공이 새로운 종단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평.

묵담스님 탄신 1백년

태고종, 용화사서 법회

태고종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스님)는 지난 7일 전총무원장 운제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묵담스님 탄신 1백주년 기념사상 강연법회 및 극락보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용화사 주지 수진스님은 "극락보전은 40평의 규모로 금강계단을 안치할 계획이며 묵담스님의 법문집과 스님의 일대기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묵담스님의 생전 법망경과 불교의식을 설한 내용을 담은 테잎이 출시됐다.

진각종 헌공 불사 봉행

부산보불·복전심인당

진각종 부산 보불심인당(주교 정광심)은 지난 21일 각해 총인을 비롯 전국스승 및 교도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이번 헌공불사는 지난해 6월 부산시 북구 모라동에 불사를 시작, 총건평 2백40평에 지하1층 지상2층규모인 심인당과 요사체, 부속건물을 갖추고 교도들의 심인정법구현의 새로운 장으로 마련됐다.

또한 부산 복전심인당도 이날 지하1층 지상 3층 약3백여평으로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미얀마 고승 초청 보살계

법화종, 남북통일 기원도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 김대호)은 지난 15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미얀마 고승초청 국제보살계 및 수계산림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종단간부스님을 비롯 각 지방 종무원스님등 4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신도시 포교 '발등의 불'

목탁소리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일산 분당 등 수도권지역 포교부실이 위험수위에 달했다.

수도권 일대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기독교 교회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불교 포교당의 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전체인구가 1백만을 넘어서고 있는 일산 신도시의 경우 교회의 수는 무려 1백50여개인데 비해 포교당은 법등사 원각사등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일산 신도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혜종스님(법등사 주지)은 "하루빨리 보다많은 사찰과 원력있는 스님들이 신도시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신도시 포교의 심각함을 말했다.

분당 신도시지역 불교포교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역에는 통도사 포교당을 비롯 10여개의 포교당이 운영 또는 건립을 추진하고 있을뿐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인구를 감안할때 포교당의 수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게다가 타종교의 선교활동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어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수원 봉녕사 입구에 대형건물이 들어 선다는 계획이 알려져 봉녕사 스님들이 이를 강력 저지한 일은 '장소불문'의 전도열성을 잘 드러낸 계기였다.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되지만 최소한 빈구석 없는 포교망 구축을 해야 한다는게 신도시 포교의 부진을 보는 우려의 목소리다.

수도권 신도시 전체인구 가운데 상당수 불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둘때 종단과 본사급 사찰 차원의 새로운 포교전략 수립은 '발등의 불'이 분명하다.

30초 건강비법 "편작전자침" 공개

보사부 제조허가 제 502호 제조원 : (주)성한 앤드김
보사부 제조품목허가 제 1호 공급원 : (주)대 진 상 역

扁 막힌 혈을 뚫고 멈춘 피를 돌게하는 무통무혈의 신비의 한방전자침 鵲

특수센서가 스스로 "경혈"을 찾아주는 전자동 전자침 (하루 20분 투자로 온몸이 편안해 집니다.)

89년 화타전자침 국내 최초개발
7년간의 기술 축적으로 95년
"편작전자침"으로 탄생

컴퓨터가 침 자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동양침술의 기적 "편작전자침"은 침술의 고장 중국을 비롯 미국·영국등 세계 곳곳에 수출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는 가정상비용 전자침입니다.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도 깜짝 놀라는 신비의 단방비법 *

가정비상용 컴퓨터 전자침 살갗을 뚫지 않아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지금 !! 바로 주문 하십시요

미국·영국수출

국제 보증서로 1년간 아프터 써비스 보장

보(+), 사(−)스위치 침의 보(+) 사(−) 스위치로서 질환에 따라(+)(−)로 맞추어 사용

▶감도조절기 편작전자침의 핵심 기능인 침놓는 자리(경혈)를 정확하게 찾아줌
▶주파수조절기
▶강도조절기 침의 혹수(1호~7호)
▶개폐스위치 전원스위치를 ON에 놓으면 탐색등에 불이 켜짐
▶치료버튼 극초 저주파를 경혈에 주입시키거나 경혈 탐색기능
▶10단 탐색등(3단적색, 7단청색) 침자리를 접근하면서 청색등이 차례로 들어와 침자리에서 적색등 꺼짐
▶탐색 및 치료침 살갗을 뚫지 않고 경혈에 특수전류 자극하여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24K 순금도금 ▶

■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신비의 침술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침을 놓을 수 있다.
- 침자리(경혈)을 스스로 찾는다 (특수센서)
- 살을 뚫지 않는다.
- 시술시 전혀 아프지 않다. (무통)
- 부작용이 전혀없다(순금도금)
- 안전하다.
- 효과가 매우 신속하다. (급성질환에 직효)
- 엄마가 아기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직접 침을 놓을 수 있다.
- AIDS나 간염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

■ 가정상비용 전자동 전자침
- 가정·학교·직장·운동팀·체육관·헬스크럽·테니스·골프장·에어로빅

보너스 1 편작 보감 Ⅰ
-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361혈의 정확한 위치 치료질환이 칼라도해로 쉽게 설명
- 침으로 치료 가능한 모든 질환의 경혈이 색인으로 첨부
- 전문인을 위하여 14경락별 경혈을 세계공통기호로 표시
- 총350여 질환의 비방 수록
- 칼라 4×6배판 460쪽

보너스 2 편작 보감 Ⅱ
- 전면을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질환별 경혈점 표시
- 칼라 4×6배판 192쪽

■ 비법에 수록된 비방 128가지
두통, 편두통, 조루, 고·저혈압, 위산과다, 안성별비, 동상, 당뇨병, 치통, 감기, 생리통, 불순, 냉대하, 기미·주근깨, 알콜중독, 담배끊는 혈, 정력증강, 차골신경통, 임포텐스, 설사, 위·십이지장 궤양, 금체, 풍치, 구강악취, 편도선염, 아뇨증, 무릎통증, 관절염, 팔·다리의 저림 마비, 각종 염좌, 여드름, 숙취, 테니스·골프·엘보우, 허리통증, 졸도, 습진, 소화불량, 불면증, 콜레스테롤 등

보너스 3 실체 경혈도 3매
-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체계적 경혈 표시 • 4절지 3매

보너스 4 건강생활 대강좌
■건강강좌 유명 강사진 —



홍문화(약학박사) 유대종((식품공학박사) 한국남(의학박사)

1 지궁암·유방암 2 원만한 부부생활
3 술·담배와 간암 4 올바른 식사의 지혜
5 당뇨병 고혈압 식이요법 6 간장병, 신장병 식이요법
- 카세트테이프 6개, 총12강좌, 자연의학연구회

보너스 5 건강교실(가정건강지침서)
1 당뇨병백과 2 고혈압백과 3 신장병백과
4 간장병백과 5 암백과 6 심장병백과 7 위장병백과
8 호흡기질환 9 관절염 류머티즘 10 자율신경실조증
*편집위원 : 홍문화, 유태종, 김경빈, 원태진(전10권)

보너스 6 이침(耳) 경혈도2매
- 인체의 상응 부위를 그림으로 세밀히 표시
- 이침 혈자리를 정확히 감지

보너스 7 이침(耳) 사용비법 및 비방
- 편작전자침으로 이침 진단법 및 사용법 공개
- 최신 중국 이침 처방공개(금연, 금주, 미용 등)

보너스 8 편작 36 비방
-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걸리는 36가지 병의 비방 공개

* 상품 8가지를 추가로 증정합니다. *

수신자 부담서비스 080-922-7777 이 전화는 받는쪽에서 부담합니다.

특별공급가 ₩158,000원
■분 할 가 ₩ 30,000 × 6회
☎전화 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VISA LG *카드소지자 장기분할 혜택드림

구입처
■서울
●서울 02)712-8711/2
●서울 02)714-9632/3
■경기도 (인천 부천 부평) ●인천 (032)502-5533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원 (0331)42-2908 (안양 의왕 안산) ●수원 (0331)45-2904 (성남 하남 광주 이금) ●성남 (0342)732-1257 (의정부 일산 파주 동두천) ●의정부(0351)874-3174
■충청도 대전 옥천 공산 영동 (충남전역) ●대전 (042)581-0151 청주 충주 조치원 공주 (충북전역) ●청주 (0431)65-8180
■경상도 (부산 김해 양산) ●부산 (051)628-2489 (대구 경산 영천) ●대구 (053)653-0623 (울산 언양 기장) ●울산 (0522)60-7996 (포항 구룡포 연일) ●포항 (0562)81-2976 (경주 안강 감포) ●경주 (0561)749-6586 (상주 영주 단양) ●상주 (0582)34-0630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안동 (0571)52-7706 (구미 왜관 칠천 성주) ●구미 (0546)456-4600 (이산 창원 진해 충무) ●마산 (0551)56-7685 (진주 사천 삼천포) ●진주 (0591)746-7551
■강원도 (춘천 가평 화천 양구) ●춘천 (0361)51-0007 (원주 횡성 홍천 제천) ●원주 (0371)46-8260 (강릉 주문진 속초) ●강릉 (0391)42-6830 (동해 삼척 태백) ●동해 (0394)32-5725
■전라도 광주 나주 목포 (전남지역) ●광주 (062)524-8110 전주 이리 군산 김제 (전북지역) ●전주 (0652)252-8862 (여수 여천 순천 광양) ●여수 (0662)666-2037
■제주도 (제주 서귀포 성산포) ●제주 (064)56-3007

교계 주말농장 속속 등장

사찰농지 이용…불심향상·여가선용 '일석이조'

사찰농지를 빌려 가족끼리 농사를 지을수 있는 주말농장이 속속 개장, 주말의 건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새로운 포교현장으로 등장했다.

경기도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묵) 선농원은 1천여평의 농지를 확보, 이달말 까지 50여 가구의 가족주말농장 회원을 모집한다.(0334-676-8700)

선농원은 이미 26가구의 회원을 확보하고 오는 30일 파종을 실시한다.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도 경기도 포천군일대 3천여평의 농지에 주말농장 '사슴뜰'을 조성하고 지난 16일 설명회를 가졌다.(02-725-7527) 불교교육연구원은 설명회에서 "주말을 이용한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50명 수용가능한 막사를 설치할 예정이다"며 22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설립한 한가람식품유통(대표 이주영)은 이농에 따른 사찰 유휴지를 이용하고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해 서울인근 사찰농지를 임대, 이달말 한가람 주말농장을 분양한다.

한가람은 도심사찰에 직판장을 설치해 주말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 까지 대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산 자비마을(051-553-0643)도 자비농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공해 유기농법으로 생활공동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말농장은 1년단위로 5만원 내외의 회비를 내면 5~10평의 밭에서 자신의 농사를 지을수 있다. 주말농장에서는 4월에 열무, 고추, 토마토, 파등을 심어 수확한 후 8월경에 김장무나 배추등을 재배하는 연2회 수확이 가능하다.

선농원 송묵스님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불자및 어린이에게 농사의 체험기회를 주고 사찰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개장했다"고 말했다.

사찰 농지를 이용한 주말농장은 씨앗과 모종,농기구등을 제공하고 농사까지 지도할 예정이어서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찰 유휴농지 이용으로 사찰의 생산과 자립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사찰 주말농장은 주말에 사찰에서 숙박을 하면서 기도등의 신행활동까지 겸할 수 있어 불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준엽 기자〉

보우국사 사리탑 훼손 북한산일대 훼불 극성

북한산 태고종 태고사에 봉안된 태고보우국사의 사리탑이 지난 9일 크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태고사측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한등산객으로부터 사리탑이 훼손됐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태고보우국사 사리탑의 상륜부인 보주가 바닥으로 떨어져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리탑의 훼손은 탑신위의 옥개석 부분 여러곳에 흠집이 났으며 방형으로 구축된 석단이 심하게 파손된 것 등으로 보아 자연적인 훼손이 아닌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근지역에 훼불행위가 종종 있었고 바위마다 십자가가 새겨지는등 최근들어 이교도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있었던것으로 보아 이교도들의 행위로 태고사 관리인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훼손된 태고보우국사 사리탑은 보물 제749호로 지정돼 있다.



수국사 비로자나 부처님 봉안 지난 19일 수국사(주지 자용스님)에서는 총무원장 월주스님,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을 비롯 8백여명의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과 높이 4m 폭 15m의 영산회상도 후불탱화를 점안, 큰 법당을 새롭게 장엄했다.

봉녕사 입구 교회 신축 '저지'

지난 18일 스님 1백30여명 수원 시청앞 항의

수원 봉녕사 입구에 건립하려 했던 남문교회의 신축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봉녕사 스님 1백30명은 지난 18일 수원 시청앞에서 좌정한채 남문교회측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구하며 침묵 시위를 벌였다. 남문교회측은 지난해 3월 봉녕사 입구에 대형 교회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봉녕사측은 '종교간의 위화감 조성' '지역사회 화합의 문제'를 이유로 강력 반대 했었다. 봉녕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남문교회측은 다른 곳에 토지를 구입 교회를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남문교회는 최근 다시 봉녕사 입구에 교회를 지을 계획을 다시 수립 최근 수원시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 했으며 수원시측은 지난 18일 봉녕사 스님들에게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역조직 결성키로

공추불, 사무처장에 덕심스님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월주)은 최근 덕심스님을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전국적인 조직확산과 운영기금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공추불은 이를 위해 5월초에 서울지역 모임 구성을 시작으로 교구본사별로 지역조직을 결성할 예정이다.

한마음 광주지원 새법당 준공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스님)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새법당 준공식 및 대행스님 초청 대법회를 개최한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법당, 요사채등을 갖춘 법당을 마련한 광주지원은 준공식을 가진후 오후 3시 대행스님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광주사암연 백일장·강연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영조스님)를 중심으로한 광주지역 봉축행사가 다음달 7일까지 성대히 봉행된다.

'하나되는 세상, 부처님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봉축행사는 지난 16일 시작된 봉축백일장대회에 이어 24일 불교강연회와 26일 도청앞 광장 봉축탑 점등식이 거행된다.

또 오는 29일 '소년원 선도법회와 다음달 2,3일 교도소·통합병원 위문법회를 개최하고 4일과 7일에는 봉축대법회 및 제등행진과 기념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하철 역구내 연등 설치

지하철법우회는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51개 지하철 역구내에 연등과 현수막을 설치한다.

24일부터 5월12일까지 설치되는 연등은 지하철법우회와 지하철인근 사찰의 지원으로 대합실 천장에 20여개의 연등을 밝힌다.

여의도행사 셔틀버스 운행

오는 29일 여의도 봉축행사장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는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방역에서 봉축행사장까지 관광버스 3대를 수시 운행하기로 했다.

전불련등 불방사태 해결 촉구

전불련과 재불련은 지난 19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방송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계종 스님의 불교방송 진행포기 종용에 경악한다"고 말하고 "총무원은 불법호지와 전법교화에 매진하는 자세를 세워나가라"고 촉구했다.

선덕여왕숭모대제 개최

팔공산 부인사(주지 성타스님)는 지난 14일 각 종교계 지도자와 스님, 신도, 지역민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선덕여왕숭모대제를 개최했다.

숭모대제는 몽고족의 침입에서 불력으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초조대장경과 속장경 십이만장의 판본을 모셨던 부인사의 창건주 선덕여왕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에 봉행된다

'한·일 승려 평화순례' 열린다

진관·준지스님 합의 광주서 출발 천안등 경유 서울 회향

7월 5일부터 25일간

한국과 일본의 승려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공동 평화순례가 열릴 전망이다.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은 지난 15일 평화순례 일정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시마누기 준지스님(일본 묘법사)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5일로 일정을 확정했다.

7월 29일까지 25일간 계속될 이번 평화순례는 광주에서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김제, 이리, 공주, 천안독립기념관 등을 거쳐 수원, 안양, 양주, 문산을 경유한 후 서울 대각사에서 회향하게 된다.

이번 평화순례는 과거 일본의 한국침략행위와 종군위안부문제 등을 사죄하고 평화기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일본측 준지스님등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일본스님 2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준지스님은 협의과정에서 "종파를 떠나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정부의 침략행위 반성을 촉구하고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이번 행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불련 특별위 설치

조직개편등 발전 모색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은 지난 15일 전불련 교육원에서 제 3기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통일운동위원회등 기존 6개 위원회를 불교발전·사회운동·통일위원회로 축소 통합하고 정책기획실과 조직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공석중이던 부의장에는 재흥스님(태고종 보현도량 회장)과 신설된 각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봉원사 현장답사

조·태 분규사찰 실무협

정화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스님들이 분규사찰의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조계종의 '조계·태고 분규사찰 실무협의회' 위원장 정휴스님 부위원장 송산스님 실무간사 조택동 재무계장, 박재현 감사주임 등은 지난 19일 오전11시 신촌 봉원사에서 현장실사를 가졌다.

이날 실사에 따르면 봉원사·소유토지도 11만여평으로 이중 경내지와 임야를 제외한 가용면적은 2만평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정산 아파트 건립 반대 부불청, 백만인 서명 전개

부산광역시 불교 청년연합회(회장 고재연)는 지난 23일 금정산 고층아파트 건립 반대시위 및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부불청은 이날 "산림훼손 및 식수오염, 사찰환경을 저해시키는 (주)경동건설은 아파트 건립을 취소하고 종교탄압, 민족정기를 말살 방조하는 현 정부는 각성하라"는 성명서를 발

'꽃씨 나누어 주기' 펼쳐

'맑고 향기롭게' 부·경모임

맑고 향기롭게 부산·경남모임(회장 이홍교 스님)과 부산운전불자가기사회(회장 백봉도)는 지난 16일 해동 용궁사에서 환경청소와 꽃씨 나누어주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방생도량 주변의 오물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리정돈을 하고 경내 곳곳에 맑고 향기로운 숲 가꾸기 일환으로 봇꽃, 각시원추리 꽃씨를 심었다.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쌍계사(2차)	3백5십3만4천8백20원
▲부산해운정사	2백1십8만6천3백10원
▲성남 봉국사	2십만원
▲성진불교 시암연합회	5십만원
▲익명의 스님 (2인)	2천만원

(3월31일~4월18일)

* 성금모금 계좌번호
농협053-01-22778
국민은행023-01-0533-563
예금주:(불교중앙교원)

함양 승안사지 주변 공동묘지화

개 사육장도 설치…문화재 보존대책 절실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에 있는 신라시대 절터 승안사지(昇安寺址) 주변이 하동정(鄭)씨 문중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게다가 보물 제294호인 승안사지 석탑 인접 20미터 부지에서는 보신탕 업체인 건강원에 의해 수십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안사지 석탑을 비롯, 경남유형문화재 제33호인 석조여래상등의 불교문화재를 가진 승안사지는 함양군 안의읍에서 3번국도를 타고 10분 가량 가다가 국도변에서 왼쪽으로 1km 떨어진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절터의 국도변 진입로에는 유적지 간판대신 정씨 문중산소임을 알리는 돌기등만 서 있다.

또한 보신탕 업체가 보물 석탑 주위에 개집을 짓고 수십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 이곳은 개들의 분비물과 울부짖음으로 아수라장이 연출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겁이나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 함양군청의 한 관계자는 "승안사지가 정씨 문중의 사유지로 되어 있어 절터 주변이 공동묘지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석탑 주변에 개 사육장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사업부 출판·신협등 활동 강화

금년 8월경 교계 최대의 불교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내년에는 종단에서 공식 지정한 불교달력이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부장 설송)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 자립종단을 이룩하기 위해 사업부를 신설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사업부는 지난10일 공신력있는 출판문화 정착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 출판사'를 설립, 통일법요집, 강원교재, 사지, 관탑권, 안내책자 등을 발간 할 예정이다.

사업부는 또한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을 2월부터 준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오는 8월말 재경원의 인가를 얻어 개설한다.

이밖에도 사업부는 불자카드, 생수사업 등 불교발전을 위한 이벤트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두송 사회복지관 운영권 수탁

불국토, 내달 15일 준공

사단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조정관스님)가 지난 15일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운영권자로 선정됐다.

부지 5백11평의 2층 건물로 오는 5월15일 준공검사를 남겨놓은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영세민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종 복지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념 금강경 특별제작

봉 불자님들에게 한정 수량 특별 보급합니다 축

금강경 10폭 병풍



▶ 전면 (남색공단에 金書)

▲후면(진품연화도)

전면 원력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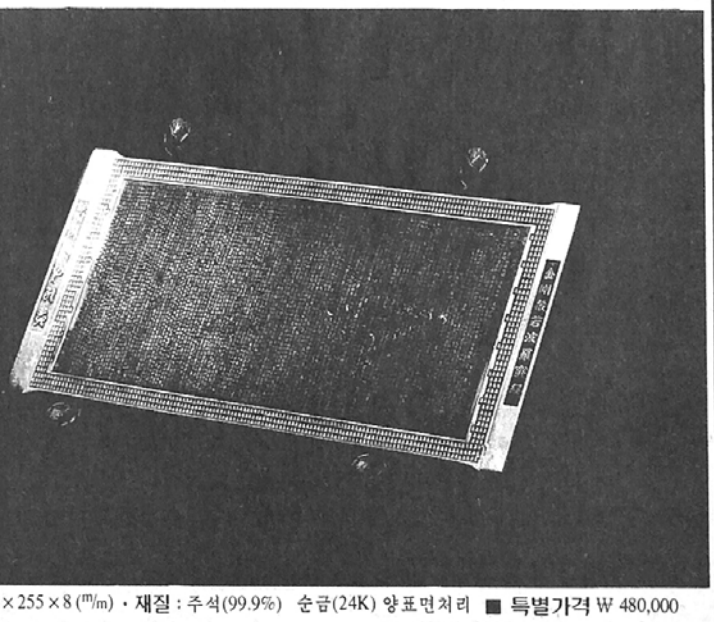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 화백의 연화도 진품

· 높이 : 5자 8치(175.8Cm)
· 폭 : 14자 5치(439.5Cm)
· 재질 : 스기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후지

■ 포교가격 ₩ 490,000

※ 참조 : 후면에 석가세존일대기 (팔상록)을 원하시면 꾸며 드립니다.

祕經 천불금강경 경판



※ 경판테두리에 부처님 천 분을 입체조각으로 조성하고 가운데 금강경을 양각하였습니다.

· 경판규격 : 505×255×8(m/m) · 재질 : 주석(99.9%) 순금(24K) 양표면처리 ■ 특별가격 ₩ 480,000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기획 제작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세상의 손발 되어 ②

주부신행담

부처님 금란가사 친견하러 갔다가 초발심 인연
가건물 자리에 '전법도량 세우자' 일손 모아

발심하여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의 석불사였다.

처음으로 법회에 참석해 법사스님이 설명해 주시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접한 나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를 감동이 일었다. 부처님의 정법과 만난 첫 인연의 길이었다.

금강경과의 그 짧은 만남으로 나는 경전공부에의 소망을 품게 됐다.

얼마후 개포동 이사를 가면서 긴 방황끝에 풍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와 묘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가건물만 있던 구룡사에 부처님 금란가사 친견하러 갔다가 1기 불교교리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게 된 것이 오늘 불자로서 정법을 수행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1백일 동안 계속된 금란가사 친견법회에서 매일 108 참회기도 정진하며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 갔다. 참회기도는 이제까지의 나로부터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했고 조금씩 나를 변화시켰다. 그것은 바로 초발심이었다. 이탈듯 열심으로 공부하여 1기 불교교양대를 수료했다. 그리고 계속된 1백일기도의 원력으로 오늘의 구룡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불사중인 본건물과 가법당 법회가 2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조직은 없지만 그러나 할 일은 한없이 많은 시기였다. 절알도 함께 돕고 어려운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면서 봉사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불교교양대학을 수료한 보살들을 기별로 묶기 시작하면서 제1기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

법회때는 공양간 봉사를 하며 또 기도 정진에 물두했다. 만날이 모셔지고 불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기까지 사내 일은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전법도량을 세우는 큰 일이라는 자부심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갔다. 교양대학 4기가 배출되었을 때 비로소 본건물이 완성되었다. 그때만 해도 한국불교의 포교 현주소는 매우 열악하였고 그래서 도심포교당의 완성은 더욱 뜻깊은 일이었다.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실천하는 생활불교를 목표로 삼고 손이 필요한 곳이면 손이 되어 주고 괴로움을 호소하면 그 괴로움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이다.

생활자체가 포교며 실천덕목이 지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생활불교의 초석이었다. 나는 어떤 일로 전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수순하는 일이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무엇이든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룡사에 결혼상담실이 생기고 인연 지어주는 일을 시작하였다.



자식 키우며 제일 어려운 일이 대학 입시인줄 알았는데 흔기를 놓친 자식들 인연 맺어주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들을 보면 마음대로 짝지워 이루게 하고 싶으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렵게 맞선을 주선해 주고나면 너무나 쉽게 헤어지곤 하는 것이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선해 주는 쪽도 힘이 빠져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좀더 좋은 방법과 많은 짝이 이루어질 일이 없을까 생각해낸 것이 그룹미팅 계획이었다. 서류심사를 거쳐 남녀 각각 30명씩 60명을 초청하여 레크리에이션 법사스님과 광룡 수목원 야유회를 계획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비슷한 환경과 교육수준을 자연스럽게 맞추어 짝지어 주려고 힘썼고 맞선 보는 어색함을 적게 하여 몇 쌍이라도 이루어 지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성을 쏟은 상담실 첫 행사였다. 그런데 미팅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당사자들이 도착하지 않는 것이었다. 스님과 나는 너무나 당황했고 등뒤에서는 식은 땀이 주르르 흘렀다. 약속시간이 30분이나 지나서야 멀리서 한 두 쌍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맙든지 그때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다른 이들도 이미 와서는 멀리서 이쪽 상황을 살피며 선뜻 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밖으로 나가서 한사람씩 안내하여 모이게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40명 정도가 모였으니 성공인 셈이었다.

동여래성 〈구룡사 진리의 전화 회장〉

일본속 고려불화 '화엄정토 변상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양식의 고려불화가 일본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제작된 이 고려불화는 중앙일보의 「해외 문화유산을 찾아서」 기획취재팀과 동국대 홍윤식교수에 의해 발견된 13세기 중반의 작품이다. 〈관련기사 13면〉



북녘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조국의 평화통일과 북녘동포에도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기 위한 호국광명등탑 점등식법회가 지난 14일 저녁 서부 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애기봉에서 봉행됐다.

해병청룡부대가 주관하고 대한불교 조계종과 김포·강화 사암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원산스님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 강남석 군승단장을 비롯해 지역 행정 관·서장 해병장병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부처님 오신날까지 평화의 등 점등은 △4. 18. 19시 월공 OP △4. 20. 19시30분 길승·종각·비룡 OP, 제적봉 △4. 21. 19시 태종전망대 △4. 25 19시 백암·백석·도라 OP, 을지전망대 △4. 26. 19시 계웅OP △4. 27. 19시 아산 OP △4. 28. 19시 통일전망대 통각 전방의 OP에 차례로 밝혀지며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광명등에 담아 전방을 환히 비쳐주게 된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삼성전관은 제품설계에서 폐기물관리에 이르는 모든 생산과정에서 무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해야, 영국의 환경표준인증인 BS 7750을 획득, 환경관리모범업체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관을 아시면
세계 1위 기업을 알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첨단기술 경쟁시대 —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선두에 우뚝 선
세계 일류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관입니다.
컬러 브라운관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이제는
세계 유수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시장 점유율 14%를 차지,
세계 1위에 올라선 삼성전관!
어려운 기술환경속에서도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삼성전관의
기술개발에 대한 도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최초 바이오브라운관과
와이드 TV용 초평면 브라운관 개발, 차세대
영상기기의 주역이 될 HD TV브라운관 개발 등으로
세계 일류기업들과 영상기술을 겨루고 있는 삼성전관 —
말레이지아, 독일 등 해외공장의 성공적 운영과
멕시코공장 진출로 세계화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술로 이룩한 컬러브라운관 세계 1위 기업,
세계속의 초일류기업 — 바로 삼성전관 다.


●브라운관 사업


●LCD사업


●특수관 사업

컬러브라운관 세계 1위 —
SAMSUNG
삼성전관